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50127-중-67676
하지정맥류 특허 수외과원 423-7582

每日新聞

심의필 제190417-중-92405호
27년 비수술 척추·관절·통증
안상호 재활의학과 의원 T_053.222.3535
2호선 범어역 11번출구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음력 9月 15日 丙申) 대표전화 053)255-5001 imaeil.com 대구 11~17℃ 구미 11~16℃ 안동 9~14℃ 포항 12~18℃ 제24046호

지지율 정체 민주 '반일 프레임' 다시 꺼냈다

日 자위대 독도 근해 훈련 맹비난

이재명 "극단적인 친일 국방"
文정부 재미 본 카드 재등장

정치 호응 끌어낼지 미지수
일부선 여론 '되치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정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재미를 봤던 반일(反日)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급박한 북한발 안보 위기에도 식상한 친일 논쟁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여론으로부터 심각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의 동해 합동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을 끌어들여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서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발끈할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날 뿐"이라며 "과거 군사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강릉에서 발생한 '낙탄 사고'까지 지적하면서 여권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 맹폭을 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 대표 발언에 어떤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익까지 외면하는 '친일 몰이'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반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다"며 "친일 몰이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시기에 친일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비속어 논란과 당내홍 등 여권 내 실책이 잇따르는데도 정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자 반일 감정을 활용, 국민 정서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적 효과를 두고는 이견이 나온다. 윤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 동북아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문 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곤 반일 프레임 주장에 호응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케이팝 콘서트 온 日 관광객 코로나19로 끊겼던 대구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시 열리면서 2년 7개월 만에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대구를 찾았다. 9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파워풀 대구 케이팝 콘서트'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콘서트 입장을 앞두고 단체로 셀카를 찍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전세 가격 뚝뚝 하락폭 광역시 '최대'

〈비수도권 5대市〉

10월 첫주 -0.31%, 달성 가장 커
주택 거래량 작년보다 44% 급감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세 가격 하락세 속에 대구의 10월 첫째 주 아파트 전세가 하락 폭은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5천531건으로 전년 같은 달 8만9천57건 대비 60.1%나 급감했다. 대구에선 1천242건으로 작년 8월(2천211건)보다 43.8% 감소했다. 8월 기준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8천301가구에 이른다. 3면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는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2022년 10월 1주 주간(10월 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세가는 -0.21%, 지방권 5대 광역시에선 -0.23%를 기록했다.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31%로 지방 5대 광역시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전은 -0.27%, 광주는 -0.24%, 부산은 -0.17%, 울산은 -0.16%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5%로 대전(-0.28%)에 이어 하락 폭 2위였다. 울산과 광주는 각각 -0.21%, 부산은 -0.19%였다.

대구 기초자치단체별 주간 아파트 전세가 변동을 보면 달성군이 -0.48%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달서구(-0.40%)와 수성구(-0.34%)가 뒤를 이었다. 매매가 역시 달성군(-0.41%)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수성구(-0.33%)와 달서구·서구(-0.23%)가 그다음으로 많이 내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달성군은 유가·옥포읍, 달서구는 대곡·월성동, 수성구는 범어·지산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선 이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 부동산 시장에선 악재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거래 심리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경북 노후 저수지 3200곳 언제 터질지 몰라

절반 이상 해방 이전 만들어져
치수시설 없어 태풍에 무방비
농어촌公·지자체 보수 미온적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경주와 포항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가 다수 붕괴·유실된 가운데 도내 저수지 절반 이상이 해방 이전에 만들어져 낡고 수위 관리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와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해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태풍 '힌남노'가 경주·포항에 이틀 동안 250㎜, 시간당 90㎜의 폭우를 쏟으면서 경주 왕신저수지 제방 외벽이 붕괴됐다. 경주 송선저수지·권이저수지, 포항 갈평저수지도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됐다.

이들 저수지 대부분은 준공 50년이 지났다. 송선저수지가 1943년에 지어진 것을 비롯해 권이저수지는 1964년, 갈평저수지는 1971년, 왕신저수지는 1975년에 각각 준공됐다. 이 같은 상황은 경주·포항에만 그치지 않아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7천여 곳의 3분의 1인 5천388개가 경북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3천200여 개(61%)는 해방 이전에 준공된 노후 저수지로 파악된다. 이들 저수지에는 물 높이를 관리해 줄 제대로 된 치수시설이 없고, 둑이 흙으로만 돼 있어 태풍·집중호우에 취약하다. 둑이 유실·붕괴된다면 주변 마을까지 침수될 수 있다.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저수지 보수·보강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규모가 큰 600여 개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총저수량 10만 톤(t) 미만인 소규모 저수지 대부분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

경북도와 농어촌공사 경북본부는 힌남노가 지나간 직후 포항·경주의 피해를 입었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농업용 저수지 154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복구 및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지난 6일 경북도는 "내년분 국비·지방비로 확보한 자연재해예방사업 예산 2천400억원 가운데 113억원을 들여 재해위험 저수지 17곳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농촌 주민들은 이 같은 보수·보강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개선이 필요한 노후 저수지는 차고 넘치는데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저수지를 더디게 보강해 위기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세분화한 기준을 통해 노후화 정도 파악 ▷정밀 안전진단 점검기준 상향 ▷저수지 안팎 불필요한 토사 정리 ▷증가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저수지 설계와 제방 보강 등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대조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지속하는 이상기후에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정부와 경북도의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Hydroxy-미생물 발효
이신화 칼슘
Yisinhwa Calcium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KHSA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칼슘
더 할 나위없는 우리 가족의 건강 대들보
좋은 칼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FDA : GRAS
칼슘원료 사용! (원료의 안전성)
다양한 방법으로 온 가족의 칼슘 보충을 더 편하게 하십시오.
밥 지을시 · 된장국 · 커피나 음료 · 물에 타서
전국취급점문의 : 1566-7230
www.yisinhwa.com
이신화 락틱애씨드 칼슘골드의 비밀
투명하고 빠르게 – 1일 6g의 행복
이신화 락틱애씨드칼슘 골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보충제품
건강기능식품
3,000mg×30포(4박스 60일분)

심의필 190508-중-93654호
오래된 척추·관절 통증
완쾌신경과의원 t.642-2123
(상인동 홈플러스 옆 우리은행 3층, 7층)

보름 새 7번째 미사일, 北 당 창건일 전날 심야 도발

북한이 9일 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들어 4번째,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만에 7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 48분~58분쯤 사이 북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 약 350㎞, 고도 약 90㎞,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엔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발사, 노동당 창건일 기념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에 대한 반발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이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동해상서 SRBM 2발 포착
올해만 40여발 위협 고조
美 핵항공모함 반발 해석
정부 NSC 열고 강력 규탄
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김 수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잇따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안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된 점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 내일 임명 예정
〈前 경북도지사〉

사실상 국내외 지역협의회 대표
권영진 前 시장도 차출 임박 관측



김관용(사진)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신임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적임자로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명장 수여식을 지난 7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개인 사정상 임명장 수여식을 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연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감염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순연된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1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면서 같은 검찰 출신인 석동현 전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연이어 3선씩 채우는 등 지역 사정에 능통한 인사로 꼽힌다. 또 지난 19대 대선 출마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 선대위원장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혀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석부의장이 사실상 국내외 지역협의회 조직을 대표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전 지사가 내정되기 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수 시민단체와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여론의 반발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지사의 요직 등용으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차출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TK 민심과 여권의 열악한 인재풀을 감안할 때 전직 대구경북 시도지사를 모두 중앙에 불러들여 국정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여권 내 일부 여론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전 기자 psj@imaeil.com

"시·도지사가 광역부단체장 지명"
"협력회의 의제 제안 권한 달라"
〈중앙지방〉

洪 시장·李 지사 대통령에 건의
홍준표 "자치조직권 강화 필요"
이철우 "국정 운영 구심점 삼길"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등 광역부단체장을 단체장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가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올해 신설된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협력회의는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주재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가 해당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광역부단체장 인사는 행정안전부가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시·도지사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제 제안권을 달라"는 요지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다.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 이에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불공정,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지방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국가발전 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새 시대를 여는 방향타를 과감히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통령이 회의에 한번도 빠지지 말고 개근하시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정 운영의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대구에서도 감귤이 자라요 아열대 과수 감귤 재배가 올해도 대구에서 성공했다. 9일 대구 동구 둔산동 별그린농원에서 한 가족이 감귤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현재 농가 6곳이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 4곳에서 출하를 하고 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은 23톤을 예상하고 있다. 출하된 감귤은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독도누리호' 취항 후 처음 독도로!

남해연구소서 울릉 현포항 향해
심해 정밀 조사 측정기도 갖춰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상 연구를 전담하는 선박 '독도누리호'가 취항 후 처음으로 독도로 출항했다.

독도누리호는 9일 오전 9시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를 떠났다.

독도누리호는 경북 포항을 거쳐 10일쯤 독도 연구 전진기지가 있는 울릉도 현포항에 도착한다.

독도누리호는 현포항을 거점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 해상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울릉도 전용 연구선 독도누리호는 지난 4월 포항에서 취항했다. 그러나 취항 후 기관장을 구하지 못해 배를 움직이지 못하다 인력충원이 이뤄지면서 출항이 가능해졌다.

41t급 독도누리호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든 쌍동선(선체가 두 개인 배)이다. 최대속도 27노트(시속 약 50㎞)로 최대 20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고성능 산소 충전기, 다이빙 사다리 등 다이빙 지원장비, 수심 2천m 이상까지 측정 가능한 정밀수심 측정기, 수층별 해류 속도와 방향을 관측하는 초음파 유속계 등 다양한 연구 장비를 갖춰 독도와 울릉도 바닷속 심층 조사가 가능해졌다.

또 워터제트 추진기를 갖춰 기존에 7시간 걸리던 울릉도~독도 사이 운항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연합뉴스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每日新聞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 임상교수 역임
모발이식
닥터헤어Lee 의원
원장 이정호 2·28기념중앙공원 옆 053-422-5824

현재와 전망, 활성화 방안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쌓여가고 있지만 쉽사리 소화될 것 같지 않다. '거래 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대구 미분양 물량은 8천301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데,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천242건으로 작년 8월(2천211건)보다 43.8% 줄었다. 아파트 가격 역시 계속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이런 현상을 반기는 실수요자들도 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간담회 형태로 정리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노기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태왕 회장),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가 인터뷰에 응했다.

거래 절벽 속 '마피'까지 등장…실수요자 선택 폭 넓어졌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분양 물량이 늘어가고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등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 아파트 값 하락세를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규제 풀려도 가격 하락 지속
수요자 더 떨어지길 기다려
급매물·할인 분양 구입할 만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
지역 미분양 대부분 대기업
공급량 많아 수도권과 달라
주택 정책 지자체 위임해야



노기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
대출 한도 늘리고 금리 지원
청약위축지역 지정할 필요도
규제 풀어야 시장 붕괴 막아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
바닥 알 수 없으니 거래 미뤄
10년간 상승세 조정 불가피
미분양에 사업 위험도 커져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가격 불안에 소비심리 위축
고금리·대출 규제 고려해야
집 구매 따른 손실 최소화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말해달라

▶김대명=지난해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연속 하락세다. 올해 7월 7개 구·군에 이어 지난달 수성구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매매가 하락 폭은 더 커지고 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입주 현상까지 더해지면 매물 적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매물이 늘면 가격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진우=지역 부동산 시장의 위험은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생겨났다. 대구는 수도권보다 빠른 2021년부터 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 규제가 더해지면서 투자자 시장에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조정이 가속화됐다. 물량은 많은데 정부 규제와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송원배=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지금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형국이다. 부동산은 희소성에 기인해 고가에 구매하는 상품이다. 이것저것 따져보지만 좋은 입지, 학군,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물건이 귀하기에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한다. 그런데 지금은 매매물량이 넘쳐나고 가격도 하락 중이다. 가격 바닥을 알 수 없기에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거래를 미루는 상황이다.

▶김병환=대구는 수도권과 달리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격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됐다. 작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지난 7월에야 수성구를 제외한 지역이 규제에서 풀렸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향후 전망을 한다면?

▶이진우=시장이 과열되면 더 올라갈 것이란 불안 심리로 매수세가 이어진다. 반대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더 떨어질 것이란 불안 심리로 소비는 위축된다. 대구는 이런 불안 심리 탓에 한동안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폭락의 위험보다 기간의 위험이 더 큰 시장이다. 소비 심리 회복이 빨라지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겠지만 회복이 늦어지면 시장 위험도는 커질 수 있다.

▶김대명=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어려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이다. 수요 측면에선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돼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아직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며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데다 고금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세,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 탓에 더욱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김병환=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효과가 상쇄됐다. 주택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물가지수가 19% 오른 데 비해 주택가격지수는 30% 상승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량 역시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송원배=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게 세상 이치다. 지난 10년 간 상승세를 이어온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단계를 거치면서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내려갈 때는 짧은 기간에 급락하게 된다. 연착륙을 바라지만 시장은 항상 뜻대로 되진 않는다. 바닥을 확인해야 상승이 가능하다. 금리 인상, 공급 과잉, 부동산 규제 등 3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때일 것이다.

▶노기원=정부 정책이 유지된다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 경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부동산 시장 붕괴뿐 아니라 대구 전체 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고, 다른 산업과 금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구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방안이 있을까

▶김대명=건설사 입장에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공급을 늦출 순 없다. 수요자들이 낸 자금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동구,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개 구 외에 요건이 되는 지역을 추가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해 분양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초과 공급된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매입하거나 대구시가 추진하려 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물론 이런 방안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던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거나 외지 투자자들이 돈을 벌 우려가 커 조심스럽긴 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정부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

▶노기원=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한도 확대와 대출금리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대구를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 또한 있다. 청약시장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하락세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도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이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지역 우선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해제된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송원배=당분간 미분양을 해소하긴 어렵다. 기존 주택이 처분되고 있지 않는 데다 수년 전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다. 고금리,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대로 두면 거래 절벽 속에 급매물이 속출,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허용해야 한다. 취득세와 부동산 중과세를 폐지해 세금을 낮춰야 거래가 활성화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부활시키고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초과 공급 물량을 정부가 비축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비축해 임대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김병환=8월 말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 물량 대부분은 대기업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709가구로 전체의 8.5%에 그친다. 현재 공급 주택의 경우 주택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으로 입주자와 하도급 업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주택보증공사와 협의해 대구 일부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부터 분양 승인까지 공사가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해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또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를 구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이진우=실수요자에게 최근의 위험은 기회일 수 있다.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뜻이다. 분양권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면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세다. 다만 금융시장이 불안해 실수요자들의 거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향후 가격 조정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금융시장 위험을 고려해 매입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그래프다. 하지만 조정 국면의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혹독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대명=매물 적체 현상과 아파트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들로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진 급매물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물건,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사, 분양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취해야 할 전략과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송원배=건설사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비용 증가로 분양가격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분양이 늘면서 사업 위험도도 커지고 있다. 사업을 연기하려 해도 금융비용이 증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확정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연기하는 선에서 이어가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지들은 포기하는 분위기다. 건설사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시행사업에는 큰 충격이다.

▶노기원=당분간 지역 건설사들은 주택 부문이 아니라 비주택 부문으로 사업 방향을 일정 부분 돌리는 노력과 함께 역외사업을 강화해 사업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공사,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등에도 지역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김병환=정부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해 수립·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공급량이 많은 대구는 수도권과 상황이 크게 달라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등 중앙정부의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줄 것을 건의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지역 상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지금처럼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

글·사진=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판촉물은 역시! 그린기프트
1588-8480
www.greengift.kr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 쇼핑몰
그린기프트

심의필 제190813-중-97996호
대구연세안과
레이저백내장 노안수술 · 라식
수성보건소 맞은편 T_053.626.8881

정상화 수순 與 '당권 경쟁'에 시선 쏠려

친윤계-비윤계 대결 불가피
김기현·안철수 표심 다지기
現 정부 질타 유승민 존재감

집권당이 이른바 '가처분 전쟁'에서 벗어나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당 내부의 시선은 차기 당권 경쟁에 모아지고 있다. 당권을 거머쥐는 대표가 2024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선 '친윤계'와 '비윤계'가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경합은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국민의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차기 전당대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 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을 찾아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달서구병)은 9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대구시당을 방문해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언론인과도 만나 당의 진로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핵심 지지층을 배려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과 전당대회 기간이 겹쳐 차기 당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공식적으로 당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인사는 김기현(4선)·안철수(3선) 의원 정도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먼저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안 의원이) 10년 동안 합당, 탈당, 창당, 합당, 탈당을 8번 반복했는데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때리며 내부 표심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제3지대 정치를 실험해왔던 안 의원은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운다. 중도 확장을 통해 총선을 이겨 여소야대 국면을 바꾸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전선인 수도권에는 중도 표심을 가진 유권자가 많다"며 "지난 10년 동안 현역 정치인 중 가장 오랫동안 중도에 대해 고민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윤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그는 9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최근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 전 의원은 현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7일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李 "여가부 폐지 우선순위 잘못"
여야 충돌 뇌관으로 떠오를 듯

이재명 "정쟁 소지" 사실상 반대
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 험로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개편안와 관련, 우려와 함께 사실상 반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미래에 대응할 만한 내용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 전언이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여가부 폐지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야의 강한 충돌도 예상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우려되는 여가부 폐지 개편안을 지금 다뤄야 하느냐에 대한 반발과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무작정 반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협조하면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반대는 하되 전면에 나서진 않고 사회적 합의를 앞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이번주 떠넘기기 국감 2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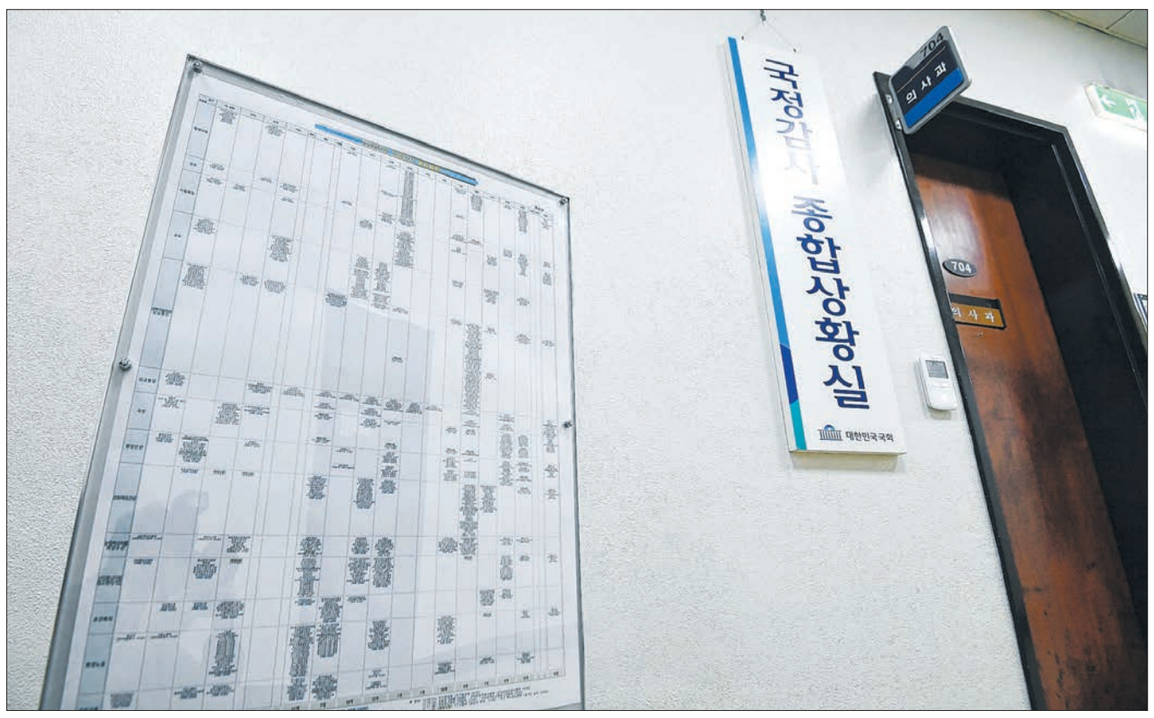
'태풍의 눈' 감사원 치열한 공방 예고

비속어 논란 보도·탈원전 정책 등
文-尹 정권 경쟁적 폭로전 전망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민생은 외면한 채 전·현 정권 책임론만 내세워 여야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국감에서는 '태풍의 눈'인 감사원 국감을 중심으로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9일에도 서로에게 정쟁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 편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주 국감에서 민주당의 정쟁으로 민생은 실종됐다"며 "이재명 대표 지키고, 김정숙 여사 옹호하고, 알박기 피감기관장 방어하는 '지옹박 국감'"이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민생은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정쟁으로 가림막 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감사원 방침은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9일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앞에 국감 종합일정표가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실정을 경쟁적으로 폭로하면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이다.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앞글자를 딴 '대감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유 사무총장 해임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 추진까지 촉구하며 맹폭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를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격전지로 꼽힌다. 방송문화진흥회(13일) 및 MBC(14일)에 대한 국감에서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민영화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총력 대결이 예상된다. 월성원전 등에 대한 MBC의 왜곡 보도 논란 등 여야의 공성전 재료는 무수한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전·현 정권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野 "대통령 비속어, 측근은 막말…국민 통탄"

한글날 맞아 尹 언사 꼬집어
김남국 "습관적 반말 삼가야"

제576돌 한글날을 맞은 9일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비속어와 욕설 논란을 낳은 윤 대통령의 언사를 꼬집으면서 윤 대통령의 습관적인 반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가를 대표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막말을 일삼는 모습은 국민을 통탄하게 한다"며 "자랑스러운 한글을 아름답게 쓰고 지켜야 할 정치권이 우리말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고 있어 부끄러운 하루"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중 방송카메라에 포착된 비속어 논란 영상과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권성동 의원이 피감 공공기관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라고 한 발언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두 분 모두 거짓 해명으로 국민 청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국민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국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무분별한 반말을 삼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미국에선 '이 XX' 욕설로 나라 망신을 시키더니 국내에선 처음 보는 국민을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또 반말을 내뱉었다"며 "청년 경찰관을 만나도, 마트에서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을 만나도 반말이 그냥 습관"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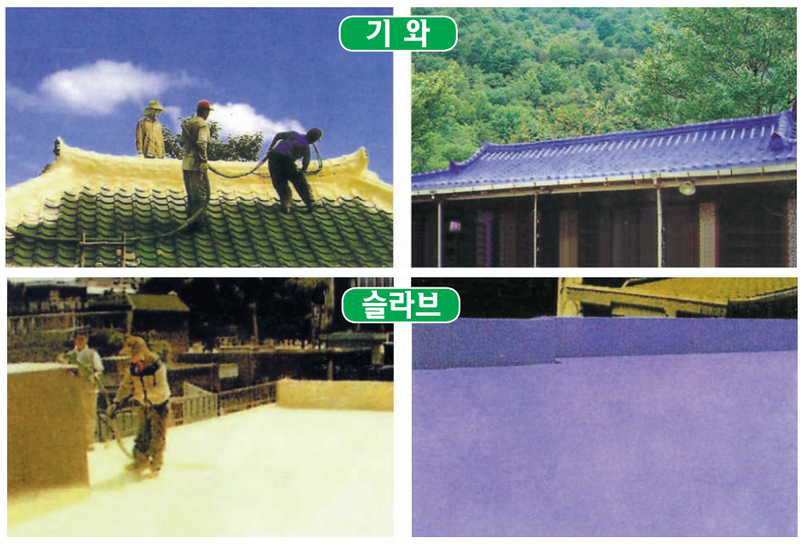
여당은 야당 공세에 언짢아하면서도 가까스로 봉합한 '비속어·욕설'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글날까지는 욕을 먹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라며 "이 정도에서 야당이 더 우려먹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비새는 집 방수 한번 시공으로 OK
우레탄 방수·단열 전문 시공업체·하자 보증보험 100%
기 와 → 우레탄 폼 + TOP코팅
스레트·공장판넬 → 우레탄 폼 + TOP코팅
옥상 스라브 → 우레탄 폼 + 하이브래드 + TOP코팅

방수1팀	방수2팀	방수3팀
우레탄 폼	도막방수	외벽도색
단열방수팀	시트방수	외벽방수

한번 시공으로 방수에서 단열까지 반영구적. 어디든지 무료출장 견적 상담 해드립니다.

▼시공 중인 모습 ▼시공 후


(주)한일우레탄·한일주택
053)568-0600
010-3202-4848
FAX)755-5543
NAVER, DAUM 우레탄 방수 검색 http://www.hanilure.co.kr

꽉 막힌 밀폐공간 사업장 '안전'도 막혔다

24곳 점검 13곳서 위반 사례
대구경북 1757곳 이상 추정
산소결핍 등 사망 사고에도
신고 의무 없어 관리 어려움



종로 맛길 레트로 페스티벌 '대구 종로 맛길 레트로(Retro·복고) 페스티벌'이 열린 8일 대구 중구 종로거리에서 레트로 복장을 한 시민들과 공연배우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치사율이 높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상당수가 직원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대구 달성군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다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을 둘러싼 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대구경북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24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인 13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노동청은 사업장들을 상대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업장들을 추려 집중 점검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밀폐공간 위치 및 위험 요인 파악' 등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던 사업장엔 시정지시를 내렸고, 교육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히 밀폐공간은 치사율이 절반에 가깝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벌어진 질식사고로 3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5명(47.4%)이 사망했다. 추락(2.5%)과 감전(6.4%) 사고 치사율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치다.

문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사업장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경북 밀폐공간 사업장은 1천757곳이지만,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일일이 밀폐공간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만,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전체 수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밀폐공간 사업장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신고 의무가 생긴다면 모든 사업장에 안전 매뉴얼을 지급하는 등 관리하기 쉬워진다"며 "또 신고제 자체로 사업장들이 경각심을 느껴 안전수칙을 지키게 되고,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죽곡 정수사업소 저류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노동청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대구시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아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독감 1주일 새 45% 급증…'트윈데믹' 현실화

의사환자 천분율 4.9→7.1명
개량백신·독감 예방접종 진행

최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40주차(9월 25일~10월 1일) 독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천분율이 7.1명을 기록했다.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 1천 명 중 독감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7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이는 39주차(9월 18~24일) 4.9명에 비해 44.9% 증가한 수치다. 앞서 독감 의사환자 천분율은 36~38주차에 4.7→5.1→4.7명을 기록하는 등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한 주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영유아에서 많은 독감 의심 환자가 나왔다. 40주차 기준으로 1~6세가 12.1명을 기록해 전주(7.9명)보다 52.5% 증가했다.

국내 독감은 통상 11~4월 사이 유행하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영향으로 유행 시기가 빨라졌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6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문제는 아직도 하루 1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독감과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개량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실시 중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2009.1.1~2022.8.31 출생),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 이전 출생)이 대상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만 75세 이상, 17일 만 70~74세, 20일 만 65~69세 무료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11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백신이 활용되는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독자와 함께 **유통 구조 최하위 지입차주의 눈물**

"오른 수송비는 그림의 떡 운행할수록 적자 떠안아"

대기업 유가 변동 반영해 지급
2차 택시조합서 인상 비용 꿀꺽
'고정 단가 계약'에 서민만 피해



LPG가스를 운송하는 A씨가 월급 명세서와 기름값 계산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심헌재 기자

유통 구조의 최하위에 있는 한 LPG 운송차량 지입차주가 일을 해도 오히려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기업이 수송비를 올려줘도 2·3차 유통 단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고정 단가 계약'이 지입차주를 두 번 울리고 있는 것.

대구에 있는 B수송업체 소속의 지입차주인 A(74) 씨는 25톤(t) 규모의 LPG 운송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정유공장에서 LPG 가스를 받아 'GS-LPG 대구개인택시5충전소'(북구 노원동)로 옮긴다. 이곳은 대구개인택시협동조합이 GS칼텍스로부터 임차해 운영하는 곳이다.

A씨의 운송비는 크게 3단계를 거쳐 A씨에게 지급된다. 우선 GS칼텍스가 택시조합에 1차로 수송비를 지불한다. 조합은 일정 금액을 가져간 후 2차로 A씨가 속한 B업체에 남은 수송비를 준다. 그리고 B업체가 다시 일정 금액을 가져간 후 3차로 A씨에게 수송비를 제공한다.

A씨는 운송업체, 택시조합 몫의 수수료와 개인이 부담하는 기름값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호소한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수송비를 인상했다. 유가 변동에 따라 기존의 kg당 35.26원에서 12.8% 인상해 39.78원을 택시조합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지입차주들이 받는 수송비는 인상되지 않았다. 택시조합이 수송업체에게 주는 수송비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GS칼텍스가 인상해 준 수송비가 고스란히 택시조합의 몫이 된 셈이다.

유통 구조의 가장 밑에 있는 A씨가 손에 쥐는 수송비는 최종적으로 kg당 22원이다. 조합과 업체가 원 수송비의 44.69%를 가져가는 식이다.

A씨는 "수송비에서 기름값을 빼고 나면 한 달에 100만원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기다 보험료, 타이어값 등 차량 유지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적자라고 볼 수도 있다"며 "하루에 왕복 400km의 거리를 6시간은 운전해야 하는데 일할 의지도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B업체 역시 '을'의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B업체가 계약을 맺은 다른 LPG 충전소들은 모두 수송비를 인상해줬지만, 택시조합만 유일하게 수송비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B업체 관계자는 "조합에 수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은 해뒀지만, 아직 뚜렷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택시조합은 수송업체와 고정 단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고정된 단가를 올려줄 의무는 없다"며 "만약 GS칼텍스로부터 받는 수송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수송업체에는 동일한 수송비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충전소와 수송업체, 지입차주간의 수송비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헌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의성에 '멸종위기 가시연꽃' 최대 군락지 〈추정〉

타 연과 식물과 경쟁서 취약
안계 저수지서 이례적 발견
환경단체 "보호 시급한 상황"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군락지가 경북 의성 개천지에서 발견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9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저수지 개천지에서 가시연꽃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시연꽃은 국내 습지 개발과 저수지 매립 영향으로 자생지가 감소한 데다, 최근 관상용으로 도입된 타 연과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견된 군락지는 현존 국내 최대 규모일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 의성군 개천지에 핀 가시연꽃.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국내에서 가시연꽃은 경기도 이남의 중남부 지방에서 자라며, 경남 창녕군 우포늪과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주로 분포했다. 그러나 우포늪은 4대강 사업 이후 늪 수위가 깊어지면서, 주남저수지는 연 군락지에 서식지가 잠식되면서 각각 가시연꽃의 분포가 줄고 있다.

가시연꽃=환경부가 법정보호종으로 보호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 연못에 자라는 수련목 수련과 한해살이풀로, 7~8월쯤 잎 사이에서 가시가 돋은 긴 꽃자루 끝에 지름 4㎝ 정도 되는 밝은 자주색 꽃이 낮에는 벌어져 폈다가 밤에는 닫힌다.

이런 가운데 경북 의성에서 가시연꽃 군락지가 형성된 것은 이례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천지 역시 연 군락지가 확산돼 있어 가시연꽃 보호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발견자 이석우(64) 씨는 "홍련 개화기를 맞아 구경 갔다가 우연히 대규모 가시연꽃 군락을 발견했다. 가시연을 지킬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환경부는 국내 최대 규모 가시연꽃 군락지에 대해 즉시 실태 파악에 나서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포항 주차장 사망 중학생 상법 탓 市보험금 못 받아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기습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15) 군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김 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의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때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경 기자 hope@imaeil.com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해례본' 9일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구한글서예대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리말로 옮긴 서예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집현전 학자들이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을 한문으로 풀이한 것으로, 1446년 음력 9월 상순을 발간 일로 명시하고 있어 후일 한글날 제정의 바탕이 되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울진 산불 성금, 아직도 390억 미집행

절반 주인 못 찾아 이재민 여전
재해구호協 "편중·누락 않도록…"

경북 울진 산불이 발생한지 7개월이 다 돼가지만, 피해 복구 등에 모인 성금 중 400억원가량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울진군과 모금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에 써달라고 이날까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비롯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에 모인 성금은 820여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400억원 정도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구호협회는 4월과 8월 2차에 걸쳐 102억원과 88억7천만원 등 190억7천만원을 배분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190억5천만원을, 적십자사도 3차에 걸쳐 47억8천만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390억원가량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이에 울진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빠른 성금 배분을 요청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최근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울진 군민의 일상 회복이 늦어지는 만큼 구호 성금을 남기지 말고 신속하게 전액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군민들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임시 조립식 주택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다"면서 "성금이 하루 빨리 배분돼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이재민은 답답하고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속한 것 못지 않게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대구경북 초선 기초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의 자치단체 지휘봉을 잡은 초선 기초단체장들이 숨 가쁜 취임 100일을 보냈다. 특히 내 고장, 내 지역 발전을 기치로 열정을 불사른 초선 단체장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약 이행과 지역의 미래를 그려왔다. 4년 임기의 첫 관문을 지난 대구경북 초선 단체장들의 소회와 본격적으로 이뤄낼 포부를 들어봤다.

"교육 인프라·공항 후적지 내일이 기대되는 동구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지역 학생 '강남인강' 수강 지원
주치의·안심버스…건강관리도



"동구의 무궁무진했던 발전 가능성을 이제는 확신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준(사진) 대구 동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00일간 교육 인프라 조성과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6·7대 대구시의원을 역임하면서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윤 구청장은 특히 동구의 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매주 동구교육발전협의체 등 교육 관련 회의를 주최하고, 이달에는 교육 분야의 명사 초청 특강을 열기도 했다.

내년에는 동구 학생들이 서울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교육 방송인 '강남인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집중 관리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 선보인다. 영어에 중점을 둔 도서관도 건립해 국제화에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동구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공항 후적지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후적지 개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윤 구청장은 "공항 후적지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도시인 만큼 주민들에게 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후적지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국립공원으로의 승격 작업이 한창인 팔공산에 대해서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역의 명산인 만큼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관광명소로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무산됐던 팔공산 구름다리를 재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도 눈코 뜰 새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백세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만 70세 이상 주민들의 고혈압과 당뇨, 치매 등 노인질환을 조기 발견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다. 올해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22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마을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안심버스를 내년부터 동구를 대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 구청장은 "지난 100일간 많은 성원을 해주신 35만 동구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동구는 발전 가능성이 풍부했던 곳인데, 이제는 그 가능성을 확신으로 만들 때가 됐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LOTTO 복권 (제1036회)

당첨번호	2, 5, 22, 32, 34, 45
2등 보너스 숫자	39

등위	당첨조건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837,323,167
2등	5개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6,499,762
3등	5개 숫자 일치	1,641,33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총당첨금은 총판매금액의 50% 이상임

모 집

모집기타

배우자 구함 27세~30세 사이, 원하는 직업: 의사,기독교인의 여성 원함/ 자가,마산 지역 땅 132,232㎡ 보유 주정열 010-9612-4212

배 달 직

배달원급구 총무 신천동, 대현2동, 신암동,칠성동 일대010-3046-3113

배달원 북구 산격1·3·4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오토바이소유자必 010-4628-1134

성당지국 성당동,감삼동, 본리동 일대 배달가능 010-3819-0808

배달원 황금동,두산동,자산동일대 주택상가 주부환영 경험자우대 황금두산,자산지국762-4769

배달원 급구 경산시 압량읍 010-2517-1109

배달원 구함 평리동,비산동, 내당동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남녀노소 가능010-2802-6313

배달원 모집 남대구·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급구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종로지국 257-2902

배달원급구 율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유자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논공·옥포읍면소재지,남여노소 정년,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중범어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4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지자可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 일대 배달원 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신문배달 고산 1,2,3동 시지 지역 남녀노소 최고 대우 794-0228·010-7929-8533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 오토바이소유자 및 송현1·2동거주자 환영 송현1동지국 625-6315·010-2809-0030

배달원모집 봉덕/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특대우 남부지국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유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배달원모집 경산 거주자 우대, 경산시 진량읍 진량지국 010-3536-6620

직업 배달원오토바이소유자 새벽2시~6시30분자유(1시간50분소요) 월50만 남칠곡지국 010-3810-7005

부 동 산

상 가

식당/커피숍

스타벅스 최고 요지 최고의 수익률! 드라이브스루 대구,경북 각: 23년초 오픈/제주도: 운영중, 월매출 1억8천 이상, 수수료13% 15년계약053) 627-5002 No. 가17-4749 달서구 청안공인 하성운

일 반 상 가

송현 월성동 동 대로코너 1층임대 버스정류장앞 450㎡ 2억/1500 코너 신월초등 맞은편 3층 약660㎡ 대형상가 임대 1억/800 010-8907-4966 No. 27290-2015-00217 달서구 신태양공인 손계수

왜관공단 공장부지 당113만원 (왜관 IC 1분) 29,200㎡ (8,833) 매100억 010-5388-3326 No. 27290-2017-00123 상인동 덕일공인 이성재

왜관최요지 상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시 대박 대2824㎡(854) 건900㎡(2동) 보3억 月1300 매가45억 053) 765-9882 No. 27260-2017-00171 수성구 황금수성공인 배현철

알파시티내 상가 최고 자리 임대 상가,사무실,평형 다양 1533-4728

상가 건물 매매 대(304) 건(178) 아파트 정문 앞 코너 단층 상가 마트 임대중 보1억 월4백 매22억 주인 010-4474-0666

통상가 북구 연경동 교회,회사 사옥 최적지 대198 건302 매37억 주인직영 010-6727-3330

보25억 月2억出 매420억 고수익 부,관별도 빌딩 010-3501-1477

중심상업지역 상가 대323㎡ 건1085㎡ 8m×10m코너 침대형E/V 5층 동구 반야월로 010-4506-9618

병원·상가 부지 마트,교회,업종 다양 통상가 부지 아파트앞 코너 대839㎡ 총매가 19억 010-3509-6186

달서구청 부근 1층 횟집 198㎡(60) 보증금4천, 권리금 1억2천, 주차장 991㎡ (300)완비 010-2732-0778

모 텔

모텔임대(경산) 객26 주차22 보3억5천, 月1천만 깨끗하고 조용함. 딱 한분만 모십니다 053) 741-8989 No. 27260-2017-00210 수성구 범어동토지부동산 김진영

※모텔 매매17억 (융·보 별도) 대2500㎡ 객46 月1억1천 이상 ※ 7억(융 별도) 대775㎡ 객30 月4500만원 053) 521-4949 No. 27170-2019-00025 서구 대농부동산 김영기

대지/임야/공장

지천 귀! 도자기 공장매매 대2645㎡ 건744㎡ 2차선접 매매11억 010-8242-4406

왜관공단 나대지 분양 6,000㎡ (2000) 12,000㎡ (4000) 왜관IC 1분 광고효과 최고입지 010-3502-7932 No. 27290-2019-00205 달서구 유성부동산 김기원

초급매 동명사거리 구안국도대로변 신축 (근,생제조,유통) 건물 매각 대1527㎡,건300㎡ 호이스트 2.8t 가설건물334㎡ 동력70kW010-9249-6565

풀빌라 급매 콘도부지(바다뷰 최상, 영구 조망,주변 각종호재) 매각! 개발계획안 있음,수성IC 1시간,전국에서 제일 저평가된 상업지 8684㎡(2627)당1백50만 010-6712-5659

구미 무을면 전답15000㎡(4500) 당7만, 주택1동, 창고 포함 김천시 증산면 산76000㎡(23000) 당4000원 /고령 운수면 산146586㎡ (44420) 당3000원 010-3512-3021

달구벌대로 땅 급매 대529㎡(160) 당 3500만 꼭 하실분 만 (분할 가능) 010-4000-1573 No. 11-2014-12 남구 천마공인 조성진

이현동 최고 요지 공장 도10M 대420㎡ 건333㎡ 당900만/의성 금성면 청로리 73번지 (관리지역) 임야 19,041㎡ 몽땅 2억010-3578-5552 No. 27170-2021-00032 서구 비전공인 신윤겸

임대 검사동 창고 공장 동구 보건소近 대1300㎡ 건500㎡ 5t진입可 사무실有 보3천 월300 053) 759-4545 No. 가-16-426 수성구 담티부동산 서관수

※팔공산 최고요지 커피숍할 땅 대1487㎡(450) 당520만 +자연녹지 2148㎡(650) 당200만 주차장 있음 053) 765-9881 No. 27260-2017-00171 수성구 황금수성공인 배현철

서대구공단 네거리 대460 당1,500만 나대지,다용도可 010-5399-4122

골프·카페·풀빌라 ※멋진땅 010-4000-8870 No. 47290-2022-00041 경산 오케이공인 김민준

기타부동산

상인동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330㎡(100) 보증금 포함 7천 매매 (골프존 파크) 보 포함 4억5천 매매010-9294-9006

부동산교환

※교환 전문 상담 대지·상가·모텔· 임야 다량보유 010-8825-3413

마켓장보고 오픈 감사 하누뜰 특별이벤트

오늘은 한우 먹는날 하누뜰 X 차원이 다른 신선함! 마켓장보고

장보고 영수증 또는 신문광고를
휴대폰으로 찍어오시면
고기드시는 테이블에 한해서

육회 100g(16,000원) +
차돌된장 2인분 또는 곰국 2인분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2년 10월 31일까지



하누뜰 오시는 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147
문의전화 ▶ 053) 634-3845



왕산기념사업회-구미시 '인사권 마찰'

올 초 사무국장 임기 2년 연장
市 "협의 없이 한 달 지나 보고"
사업회 "이사회 의결 간섭말라"
운영권 위탁 공모 이후 신경전

구미 왕산기념관을 수탁해 운영하는 왕산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올해 초 이사회를 통해 사무국장 임기를 2년 연장한 것을 두고 기념사업회와 구미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시는 기념사업회가 시보조금을 받는 만큼 당연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념사업회 측은 공모를 통해 왕산기념관 운영권을 수탁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사무국장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기념사업회 정기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임기를 2년 연장하는 것을 의결해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구미시는 기념사업회가 운영비·인건비 명목으로 시 보조금(2억6천만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사회가 사무국장 임기를 연장하고, 임기 연장 결과도 한 달이 넘어선 3월쯤에야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사무국장의 임기 연장 문제가 구미시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공모로 왕산기념관 운영권을 획득한 만큼 인사권에 대해서도 구미시로부터 간섭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2009년 왕산기념관 개관 이후 관례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4차례 동안 수탁해왔다.

그런데 구미시는 지난해 5차 계약에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근거로 해명도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 아닌 일방적인 '공모'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촉발됐다는 게 기념회 측의 주장이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개관 이래 계속 계약기간 연장을 해오다가 지난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미시가 '공모'로 전환해 진행한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왕산기념관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사업을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사무국장 임기를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인사 등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관 조항을 넣도록 기념사업회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imaeil.com

포스코, 저탄소 플라스틱 원료 개발 참여

부생가스에서 일산화탄소 추출
기존보다 이산화탄소 15% 저감

포스코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토대로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 6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저탄소화학공정 융합연구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단은 포스코·LG화학·롯데케미칼 등 기업을 비롯해 한국화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RIST·포스텍·충남대 등 모두 10개의 산학연이 공동 참여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에는 모두 2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단은 기존 기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15% 저감할 수 있는 플라스틱 원료 '저탄소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와 RIST는 제철소 고로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로부터 선택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수소가 풍부한 합성가스를 제조하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일산화탄소와 합성가스를 이용해 메탄올을 생산한 뒤 이를 나프타와 동시 분해해 플라스틱의 기초원료가 되는 올레핀을 제조한다. 이 같은 통합공정 개발은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포스코 측은 올레핀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나프타 생산 공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제철소의 부생가스에 포함된 탄소를 포집·활용해 제철공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연구는 내년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진행된다. 연구단은 광양·여수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CCU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정석모 산업가스사업추진반장은 "현재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제철공정과 발전소 열원, 수소 생산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철강의 자원으로 석유화학산업의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승혁 기자 psh@imaeil.com

웃음 가득한 청도, 거리엔 '주홍빛'으로 물든다

반시 축제·코미디아트페스티벌
14~16일 다양한 즐길거리 준비



2019년 열린 청도반시축제장에서 반시터널이 주홍빛 물결을 이루고 있다.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오는 14~16일 청도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한다.

올해 청도반시축제는 '주홍빛 반시 맛에 반하고, 주홍빛 청도 멋에 빠지다'를 주제로 정했다. 청도군은 이번 주제가 청도군민과 관광객에게 행복과 활력을 주고, 반시 농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생과 희망의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제장 일대는 반시주제관부터 상설무대, 반시터널, 포토존까지 주홍빛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황금반시를 찾아라, 반시이색가요제, 감물염색패션쇼, 반시마켓 등을 선보인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반시퀴즈왕, 천하제일 반시대회 등 이벤트 게임과 감물염색, 감식초 족욕, 감잎차 다도 등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으랏차차! 꼭두야 함께 웃자'를 주제로 유쾌한 웃음과 행복을 주는 힐링 코미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코미디아트극장, 코미디쇼극장은 3일간 진행된다. TV프로그램 웃찾사와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들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중국 곡예서커스와 개그가 결합된 산동성 기예단, 마술쇼 등의 공연과 김연자, 조항조(개막식), 홍진영, 김희재(폐막식)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이밖에 야외광장에는 코미디포토존, 코믹만화방, 서커스 놀이터, 추억의 오락실 등 관람객이 참여하며 즐기는 체험존과 청도특산품을 이용해 개발한 음료 등 푸드존이 운영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3년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많은 관광객이 주홍빛 물결 넘치는 청도로 가을여행을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규 기자 jgroh@imaeil.com

경산역 KTX 늘리고 지식산업센터 짓고…

市 5대 분야 77개 공약사업 확정

민선 8기 조현일 경산시장이 '시민중심 행복경산'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77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9일 경산시에 따르면 분야별 공약사업은 ▷살고싶은 도시환경(22개 사업) ▷일자리중심 미래경제(23개 사업) ▷사람중심 교육문화(11개 사업) ▷지켜주는 행복복지(14개 사업) ▷시민중심 적극행정(7개 사업) 등이다.

살고싶은 도시환경 분야에는 ▷경산역 KTX증설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진량 연장 및 순환선화 ▷3호선 경산 연장 및 경산 전철시대 기반조성 ▷와촌-하양-진량-남산-남천 연결 종축 고속화도로 건설 등이다.

일자리중심 미래경제 분야에는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산창업열린 공간 조성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조성 ▷경산지식산업지구내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설 등이다.

사람중심 교육문화 분야에는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장학사업 기금 확대 ▷경산시 문화재단(가칭) 설립 ▷경산예술인창작촌 조성 ▷원효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 수립 ▷대학연합축제 개최 등이다.

지켜주는 행복복지 분야에는 ▷고령화시대 AI-IOT기반 동네주치의 돌봄의료서비스 확대 ▷시니어스포츠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교통 소외 지역 농촌마을 행복택시 운영 등이다.

시민중심 적극행정 분야에는 ▷현장소통 시민고충상담실 운영 ▷뉴미디어팀 신설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 등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무분별하고 선심성 공약 남발이 아닌 국책사업에 따른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진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위한 사업으로 공약 이행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 251-1234

알뜰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위민행정사
대표행정사 : 박 희 명
내용증명, 합의서, 진정서, 탄원서, 가정고민, 국가보훈업무, 행정심판, 각종민원서류, 출입국업무
※북한이탈주민 상담 우대
수성구 수성로76길 10 (대구시 교육청 정문앞)
전화 : 010-8562-4962, 633-6016

조적(벽돌) 공사 전문
적벽돌,파벽돌,큐블럭, 와이드벽돌, 디자인 블록, 농촌 담당(스프릿 블록) 견적 문의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가온건축 (053)-767-0404
대구 수성구 파동로 119

풀칼라 LED전광판
◆공장도 판매◆
풀칼라동영상시대 / 기존삼색 / 보상매입
시공 / 견적문의 / 상담환영
국제LED ☎ 1877-3166

벌침(봉침)용 생벌 판매
벌침(교육) 개인지도
010-7655-5879
네이버카페 ▶벌침과 봉료법으로 무병장수하는 법
지하철 3호선 구암역 도보 5분

진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성, 병명없이 고생하시는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 달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묘목판매
◆과실수 : 대추, 석류, 호두
◆조경수 : 연산홍, 사철, 수국
◆약용수 : 접목구지뽕
◆산소조경 : 황금측백, 옥향
대구 달성군 다사읍 부곡리 694-8번지
송정원 010-4008-4823 010-3161-2432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 · 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파산 면책 /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 대구2006-3호

국내 국제 한국결혼상담 초혼 재혼
전문직(의사, 법조인, 공직)
국제허가 대구중구 2018-0001 국내.허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대구 중구 태평로 273
010-8181-8024 (옥소장 전문직 상담)

벌목 임업 전문
위험수목 제거
태양광모듈 청소·예초기
(주)푸른임업 · 벌초
053)424-6567, 010-8773-6567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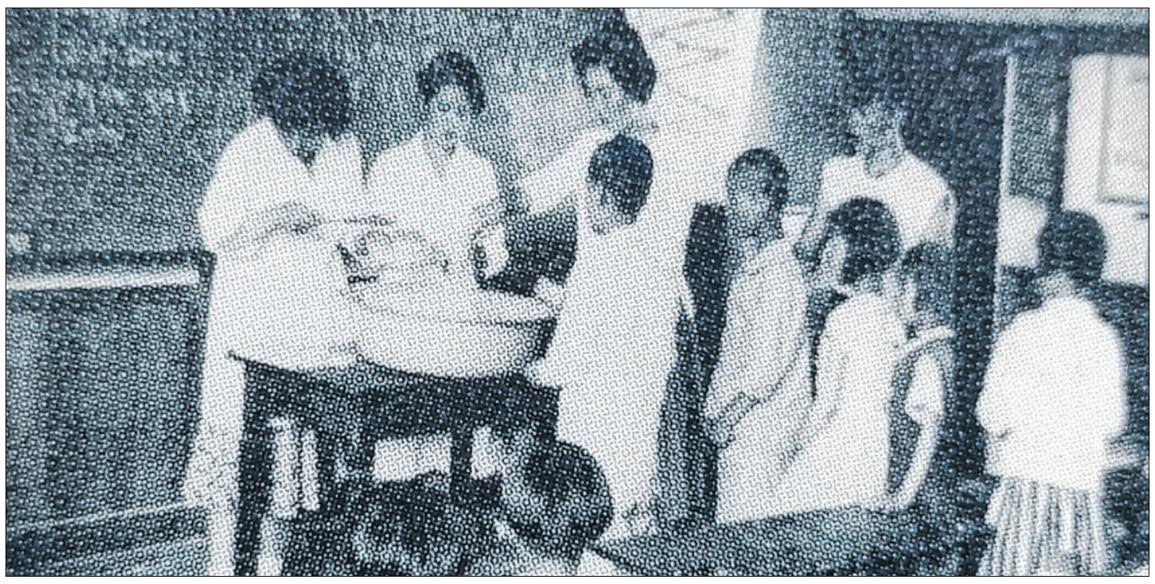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32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훈기나는 조립식 전기온돌 판넬
건식 온수 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L파이프 수명과 동일
W 우진산업 우진플기나 www.woojinondol.com
40년 전통의 바닥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가발명장 1호 천 정 일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 ~ 120만
30년 연구한 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증서)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1950년대 포항 흥해초등학교에서 가난한 벗 돕기 운동을 하고 있다. 흥해초 제공



1924년 제1회 포항 기계초등학교(당시 기계공립보통학교) 졸업생 사진. 기계초 제공

일장기에 태극 4괘 그려 '만세'

포항 흥해초

의창소학교 개교 2만명 배출
일본인 교장 배척 항일운동
지진 피해 본 교실 개축공사



포항 흥해초등학교 전경

한국에 근대화 교육이 뿌리내리기 시작할 무렵 경북 포항에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사립학교가 들어섰다.

1908년 4월 4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현판을 내건 '의창 학교'였다. 이 학교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곧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의 암흑기에 휩쓸렸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항의 항일운동의 중심에서 활약하는가 하면, 해방 이후 신지식 운동을 선도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일꾼을 숱하게 배출했다.

이 학교는 일제 때 의창공립심상소학교, 의창공립국민학교였다가 광복 후인 1945년 9월 24일 재개교한 뒤 흥해국민학교를 거쳐 1996년 현재의 '흥해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학교는 2008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면 곧 성공한 사람이니라'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의 문구는 시대의 위기 때마다 앞장섰던 학교 선배들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일제강점기 이 학교 교사들은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단체인 조선산직장려계에 가입하는 등 항일 활동을 벌였고, 학생들도 일본 천황에게 침략의 부당성을 적은 항일독립투쟁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또 일본인 교장을 배척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항일의 중심에 흥해초 선배들이 있었다.

32회 졸업생인 정장섭 씨는 학교 100년사 축사에서 "황국 소년으로 교육받았던 우리는 해방의 그날 일본 국기에 먹으로 태극과 4괘를 그려 만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 신앙의 대상인 '신사'를 때려 부쉈다"며 "기세가 등등했던 일본인들이 그날은 겁을 집어먹고 기가 죽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36회로 졸업한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은 "일제의 혹독한 전시 통제와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참담한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육을 받을 때의 감격과 결의는 충만했지만, 민족의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변혁을 맞아 사회적 진통과 혼란이 극심했다"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는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쳤고, 우리는 열심히 배우며 꿈을 키웠다"고 축사를 통해 소회를 풀었다.

이렇게 흥해초가 지역에 뿌리내린 지 114년이 흘렀다. 그동안 흥해서부초와 흥해남산초가 이 학교에서 분리 개교하기도 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지난 1월 8일 제109년 졸업식을 기준으로 총 졸업생 수가 1만8천349명이다. 13학급(일반 12, 특수 1), 유치원 2학급이 편성돼 있다.

100년을 분기점으로 학교는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를 교육 목표로 잡고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어린이 ▷새롭게 생각하며 탐구하는 어린이 ▷스스로 꿈과 끼를 키우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등 교육 중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영미 교장은 "일찍이 의창소학교로 개교해 숱한 역사의 질곡을 거치면서도 2만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학교"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배움이 즐거우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흥해초 교표는 푸른 원과 무궁화, 펜, 벼로 구성돼 있다. 슬기롭고 은근과 끈기로 자라는 어린이, 곡강의 푸름과 씩씩한 어린이들의 영원함,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는 어린이, 지식의 열매를 의미한다. 교목은 이팝나무, 교화는 장미이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가 큰 피해를 입어 한때 컨테이너 교실에서 학생 수업이 이뤄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2년 여 동안 진행된 개축공사로 현재는 교육 환경이 정상을 되찾았다.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선배들 2억 모아 체육관 건립

포항 기계초

섬유업 대부 코오롱 이동찬
여순사건 생존 장교 최석신
굵직한 인물 모교 사랑 각별



포항 기계초등학교 전경

'태백산 정기 받아 비학운주봉 기계천 맑게 흘러 동해물 되어~.'

지난달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초등학교 운동장에 교가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지역 정재계 등 내로라할 졸업생과 내·외빈 700여 명이 한데 모여 학교 100주년을 기념한 자리였다.

원래 이 학교의 100주년은 지난해 9월 27일이다. 한해 늦게 진행한 것은 2017년 포항지진 탓이 컸다. 지진과 복구로 지역이 여러모로 어수선해지면서 기념행사에 집중하지 못했고, '이왕 늦게 진행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1년 뒤 행사가 계획됐다.

이 학교는 1920년 9월 기계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이듬해 9월 4년제 학교로 문을 열었다. 현재는 전교생이 49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지만, 한때는 2천명이 다녔던 학교다.

교가도 '이천학도는 화랑의 옛길을 밟아나가세'라며 찬란했던 학교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김판귀 교장은 "지난 백 년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활동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기계초를 졸업한 학생은 1924년 41명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1만746명이나 된다. 졸업생 중에는 한국의 역사에 크게 기록될 걸쭉한 인물들도 많이 있다.

2014년 11월 타계한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도 이 학교 12회 졸업생이다. 국내 섬유업계의 대부로 불린 그는 1981년도에 회고록 자료 수집을 위해 모교에 들렀다가 동창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동문을 모았고,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헐벗은 국민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해 사회봉사와 애국을 한다는 신념을 갖고 사업에 임했다고 전해지는 등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후대에 기억되고 있다.

고(故) 손도익 경동그룹 창업주도 이 학교를 졸업했다. 제11회 졸업생인 그는 무연탄공장을 시작으로 보일러 사업에 도전하면서 굴기를 이뤘다.

제18회 졸업생인 최석신(93) 전 육군소장도 학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의 생존 장교이기도 하다. 여순사건은 여수 주둔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반란 사건이다.

그는 합참전략기획국장, 한미제1집단군단 부군단장, 주 이탈리아 공화국 대사관 부 무관, 주 파나마·노르웨이 대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계초 100주년을 맞은 후배들에게 "시간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면서 격언으로 "잃어버린 부는 근면과 가계로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건강은 절제와 약제로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지식은 면학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가버린다"는 말을 남겼다.

이밖에도 손봉호 철학박사(서울대 명예교수), 황상옥 일면스님(동국대 이사장), 김상균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물들이 각 졸업기수마다 배출되며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굵직한 인물들이 포진한 동창회는 1986년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제39회 졸업생인 오순표(74) 기계초 100주년 사업 사업국장은 "당시에 동창회가 2억원이라는 돈을 모아 체육관을 지었다. 이런 사례는 전국 어느 학교 역사를 뒤져봐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선배들의 모교 사랑이 정말 각별하다"고 했다.

배형욱 기자

oticon life-changing technology 오티콘보청기 소리로 전하는 감동

오티콘 보청기 경주대리점

청각 장애 복지카드 발급해드립니다.
(병원 검사 및 교통 편의 무료지원)

· 기초, 차상위 계층 100%무료
· 일반 청각장애인 90% 무료
(정부 지원금 131만원 기준/청각장애2~6급)
· 무료 가정방문 A/S 해드립니다.
· 방문 보청기 상담 환영 합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읽고 사용하세요.

대구 동구 신암남로 179 진산빌딩 4층 506호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 4번 출구 40M 지점) 053-939-2255 010-4509-2555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15, 5층 (준이비인후과병원 5층) 054-761-8929 010-4509-2555

1 대구·경북 1등광고

★ 자기개발과 리더십프로그램 ★

연설, 스피치, 성격개조, 면접

♣ 강 의 내 용 ♣

◐ 화술과 대중스피치
◐ 자기개발과 리-더쉽
◐ 상담 및 비지니스, 스피치
◐ 각종선거(정치)연설
◐ 직무관련, 스피치
◐ 자신감과 표현력
◐ 연단공포 및 대인공포
◐ 각종행사 및 사회진행 기법
◐ 오바마식, 파-워 스피치
◐ 톡톡 튀는 의사전달

대통령표창과 국민훈포장, 전수자 김재호선생 직강
www.한국스피치아카데미.kr

주소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76(동인2가) (대구시청 현관 앞)

확실한 변화와 자신감, 강력한 리더십
파워와 설득의 스피치
불안, 우울, 초조, 소심을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개조

▶대상 : CEO, 기업인, 은행원, 공기업 및 공무원, 직장인, 교사, 보험임직원, 주부, 개인사업자, 대학생(입학,취업)면접

▶수업시간
• A반 : 월,수,금 - 오후 3시, 7시
• B반 : 화,목,금 - 오전 11시, 오후 3시
• C반 : 주말(토요일) 오후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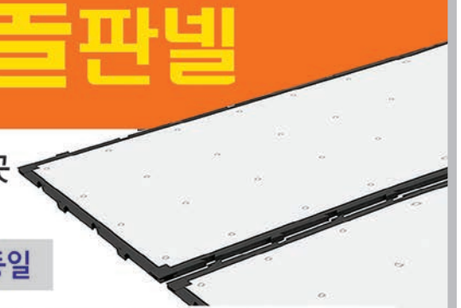
원장 : 김 재 호

-- 그룹지도, 개인지도 --

한국스피치 아카데미
☎ (053)424-2271~2 (대구시청 앞)

전기온수 온돌판넬

아파트, 가정집 배관이 오래되어 방이 따뜻하지 않는곳
누수가 생기는곳, 당일시공 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L파이프수명과 동일

우진산업 우진온기나 www.woojinondol.com

40년 전통의 바닥난방 전문 생산공장
우진산업 053)581-0111~2

못 받는 돈 받아드립니다

▶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
▶ 공사대금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
▶ 점포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 인간관계, 어려운 사정으로 빌려준 돈을 못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
▶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사라지는걸 알고 계십니까 ?

아, 잠깐!! 저희 회사는 착수금 (선불경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받겠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본부장 정종기 053)755-4207, 010-2528-5054 FAX. 053)759-6003 출장 무료 상담 MBC사거리 앞

“물가 확 안 잡히네” 한은 12일 두 번째 빅스텝 밟나

금통위 사상 첫 5연속 인상 임박
한미 금리차·강한달러 압력
통화정책 사전예고 지침 수정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수 경제 전문가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7월에 이어 이달 빅 스텝을 밟을 거라 전망한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하긴 어렵다고 봐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108.93)는 전년 동기 대비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으나 5%대 중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적게 하락해 빅 스텝의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

예상대로 한은이 빅 스텝을 밟으면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0.50%p 인상 조치다. 특히 4, 5, 7, 8월에 이어 역대 처음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오른다.

빅 스텝 전망의 또 다른 근거는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다.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약 2년 반 만에 한국(2.25%)을 앞질렀다가 8월 한국은행의 0.25%p 인상으로 같아졌지만, 이제 격차가 0.75%p까지 벌어졌다.

만약 12일 한은 금통위가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만 밟고, 11월초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1.25%p로 커진다. 이어 11월 말 금통위가 또 0.25%p만 올리고, 12월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결정해도 격차가 1.50%p에 이른다. 1.50%p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이다. 이는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사전예고 지침 수정을 시사한 점도 빅 스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 직후 “당분간 0.25%p씩 인상하는 것이 기조”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0.25%p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DGB Index 주간 변동 〈4일~7일〉

코스피	2,232.84	(+23.46P)
코스닥	698.49	(+1.7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4.276	(+0.195%P)
환율 (원·달러)	1,412.4	(-14.1원)
금값 (1g)	77,630	(-220원)

DGB대구은행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DGB대구은행 DGB



외식 물가 9.0% 상승
30년 2개월만에 최고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물가 지수는 106.5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2001년 10월(4.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특히 개인 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9.0% 상승, 1992년 7월(9.0%)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외식 품목 중에선 햄버거(13.5%), 갈비탕(12.9%), 김밥(12.9%), 자장면(12.2%) 등이 많이 올랐다.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서비스 가격의 특성이어서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 물가 상승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당분간 물가가 5%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골프웨어도 가을 타나봐~ 대구 신세계백화점 6층 ‘제이린드버그’ 골프웨어에서 가을철 라운딩에 어울리는 F/W 시즌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카밀라 니티드 스웨터’는 부드러운 울 소재로 배색 카라의 디테일과 전면에 큰 로고의 포인트가 돋보인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제공

2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국가산단 생산·수출·고용 내리막

5년간 공장가동률도 2.2%P ↓
지역 경제·제조업 뒷받침 못 해



양금희 의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와 제조업이 성장하는 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생산과 수출, 고용과 공장 가동률 모두 하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사진·대구 북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업체당 연간 생산액은 2017년 140억원에서 2021년 133억6천만원으로 줄었다.

업체당 연간 수출액도 2017년 496만달러에서 지난해 457만달러로 약 39만달러 감소했다.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수출액이 5천737억달러에서 6천444억달러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산업단지가 이러한 성장세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고용 창출 효과도 줄었다. 2021년 국가산업단지의 총 고용 인원은 96만9천797명. 2017년(102만3천385명)보다 5만3천588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업체당 고용 인원도 23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공장 가동률도 떨어졌다. 국가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은 2017년 89.7%에서 2021년 87.5%로 2.2%포인트(p) 낮아졌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은 같은 기간 71.8%에서 75.3%로 가동률이 좀 더 높아졌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가 미래 성장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신사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요금제 바꾸면 전기료 83억 절약

서울시 500개 아파트 단지 분석
종합보다 단일계약이 더 경제적



구자근 의원

전기 요금제만 바꿔도 아파트 전기료를 83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경북 구미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500개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종합계약 요금제’를 선택한 250개 단지 중 192개 단지에서 ‘단일계약 요금제’ 대비 83억7천98만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계약 요금제를 택한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는 단일계약 대비 6억2천49만원을 더 내 같은 양의 전기를 쓰고도 요금제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단일계약 250개 아파트 단지에 종합계약 요금제를 적용하면 38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즉 종합계약 요금제가 전기료 인상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전기료 차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종합계약은 가구별 전기요금에 비싼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단일계약은 저렴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요금제 유·불리는 공동설비 전기요금 산정방식에서 발생한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이 공동설비 사용량 비중이 높은 주상복합 형태일수록 공동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종합계약이 유리하다. 같은 주상복합이라도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구 의원은 “같은 전기를 사용하고도 요금제 선택에 따라 내는 요금 차이가 크다. 한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사용 유형에 맞는 전기요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원영 기자

MBC, TBC TV방영 43년 전통
운명을 알고 미래를 설계하면 실패가 없다
▶신생아 이름, 상호, 아호, 연예인 이름, 회사명, 개명 전문◀
특별작명
NAVER 대구백운철학관 daum 대구백운철학관 을 검색해 보세요!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먼거리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반액으로 잘지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역학인 협회 회장
사주/궁합/사업운/변동운/취직운/시험/사성
택일/혼인문제/이름/애인관계/부부운/부부갈등
결혼/이혼/삼각관계 갈등에 헤매는 분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주간·야간 철학
명리 개인지도 속성반 2개월완성후개업
위치 : 대구 달성공원 정문앞
백운철학
세상만사 힘들고 어려우시면 무엇이든 한 번 물어보세요
휴대폰 : 010-2002-8833 TEL : 053-567-5577

의성圓

안계전통시장
고객 경품사은행사

의성 군민의 날을 맞아 의성 농특산물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일시: 2022. 10. 21.(금) 장소: 안계전통시장

의성군 안계면 안계시장길 14-9



의성군 경제투자과 ☎ 054)830-6456

시진핑, 마오 후 처음 3연임 확실시…중국 정치 바뀌나

〈마오쩌둥·毛澤東〉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16일 북경서 개막…5년간 이끌 지도부 결정

중앙위원 200명 선출 예정
習 측근 상무위 진출 관심
68세 퇴임 여부 핵심 변수
총리에 왕양·후춘화 거론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를 결정하고 정치·경제·외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16일 열린다. 통상 1주간 열렸던 전례를 고려하면 22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당 대표 2천229명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당 대회 마지막 날 무기명 투표로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중앙위원들은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열어 총서기와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변이 없는 한 이 기간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연임하며 세 번째 5년 임기를 무난하게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은 1중전회에서 인선이 끝난 뒤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권력 서열대로 입장하기 전까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시진핑 '영수' 칭호 여부 관심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가 시 주석의 3연임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에 유임됨으로써 집권 3기를 열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에 취임했다.

5년 뒤 19차 당대회에서는 '격대지정'(隔代指定·현 지도자가 한 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지정해 육성)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장기집권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에는 국가 주석을 5년씩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한 임기 제한 헌법을 고쳐 3연임의 길을 닦았다.

지난해 11월 채택한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를 통해 집권 연장에 대한 정지작업도 마무리했다.

중국 공산당의 내부 권력투쟁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모든 정황이 시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3연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이 불러올 중국의 정치 시스템 변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상무위원 누가 오를까 관전 포인트

최고 지도부를 일컫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누가 오를지는 최고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 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인 상하이방(上海幇),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으로 대표되는 3대 정파의 권력 나눔과 '칠상팔하'(七上八下·최고지도부에서 67세는 남고 68세는 퇴임한다는 내부 규칙) 관례의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다.

전문가들은 올해 69세인 시 주석 본인은 칠상팔하 관례를 깨지만, 다른 상무위원은 이 관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시 주석을 제외한 6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서열 3위와 7위인 리잔수(72)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 상무부총리는 은퇴 대상이다.

리커창(67) 총리, 왕양(67)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67)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65)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나이에서는 자유롭지만, 권력투쟁 과정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에는 공청단 출신 왕양 주석과 후춘화(59) 부총리가 거론된다.

2013년 3월 총리에 오른 리 총리는 총리 임기는 최대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내년 3월 자리를 넘기게 된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1년 이자 내가 총리를 맡는 마지막 1년"이라며 시 주석 3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물러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왕 주석은 광둥성과 충칭시 당서기를 지낸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 부총리는 부총리 출신이 총리로 승진했다는 관례와 현 부총리 4명 중 유일하게 은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예상이다.

신임 총리는 내년 3월 결정되지만, 당대회 다음날 열리는 1중전회에서 공개될 새 상무위원의 서열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무너진 우크라 아파트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있는 민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한 아파트가 붕괴직전이다. 연합뉴스

"교황의 방북 의지 강렬"
교황청 北에 초대 요청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교황을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황청 외교부 장관인 폴 갤러거 대주교는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주교황청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축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국민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왔다"며 "북한 당국이 공식 초청을 한다면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교황의 열망은 강렬하고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방북 의지를 드러냈다.

교황청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교황의 방북 의사를 밝힌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황청 관계자는 "사실 교황청 실무진 사이에선 교황의 방북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선 기류가 바뀌었다"며 "그만큼 교황의 방북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남한을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대학병원 의사 상습 성추행
147명과 2천여억원 배상 합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 수백명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추행에 책임을 지고 미국 뉴욕의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이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을 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7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해든(64)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1억6천508만1천 달러(2천352억 원)의 배상 기금이 마련되며, 원고(피해자들) 측과 피고(CUIMC·NYP) 측 등 사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게 될 특별관리인의 지휘 하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된다. 연합뉴스

물고기 잔혹한 도살 막을 '인도적 생선손질' 국제기준 나온다

국제 비영리기구 어류 복지 검토
편안한 죽음 맞도록 기절은 필수

물고기의 덜 잔혹한 죽음을 위한 인도적 국제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류도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통에 괴로워한다는 연구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기구 지속가능한양식관리위원회(ASC)는 물고기가 유통 과정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어류 복지기준 초안을 검토 중이다. 물고기를 죽이기 전 기절시켜 물리적 고통, 스트레스,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ASC는 "물고기는 지각 있는 동물이며 (인간의) 손질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질식시키기, 소금이나 암모니아에 담그기, 내장 적출하기 등의 야만적 물고기 도살 방식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추후 갑각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에 적용될 방침이다.

물고기가 아픔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이제 엄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찌감치 2009년 "물고기는 지각 있는 생물이며 죽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연구를 20년 이상 진행해온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생물환경과학부의 린 스네돈 교수도 "물고기는 미로를 탐색하고 다른 물고기와 복잡한 관계를 맺는 등 (보기보다) 지능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인부동산

수 성 구

최선부동산(주) 우병선, 수성1741-0070/27260-2017-00216

장원·아너스 가든1,2,3차 경남을지명문
범어청구하이츠, 효성백년가약궁
라온2차, 범어센트레빌, 빌리브범어
쉐르빌, 아크로타워 053)741-0070

(주)경동부동산 한성구, 수성1666-0577/가1-16-3342

월1억出54억인수가
대4,270㎡, 건12,600㎡
통상가 (보11억, 융자125억) 급매 1666-0577

스타벅스 급매매
보3억, 月12%, 대지 약2,591㎡
건 약429㎡, 매80억, 융60억가능
17억인수가 1666-0577

★나대지 급매매
대지606㎡, 건265㎡, 9억5천
당520만 15m도로접 1666-0577

★원대오거리 인근
근린상업지역, 급매, 대218㎡
건379㎡, 대로변접, 당1500만
회사사옥최적지 1666-0577

남산동 나대지 급매
대330㎡, 건125㎡, 신축하기 좋은
부지, 재개발 지역투자, 13억7천
융80%가능 1666-0577

신천동최요지상가부지 대1,285㎡
당3,300만, 대도로변접
인근대단지ⒶⓅⓉ단지 1666-0577

중구대신동최요지
상가부지, 급급매, 대1613㎡, 4차선
대도로접, 당1500만, 조절가능(회사
사옥, 골프장, 커피숍등) 1666-0577

동 구

동행부동산(주) 하종욱, 동구744-6767/27140-2022-00073

※急 3층 상가※
대311, 건318, 동구역근, 상업지역
몽땅20억 명도미, 급매 053)751-2800①

주거2종7층허가可
대400″, 도로 6차선접
28억 당700만 053)744-6767

달 서 구

KT부동산중개(주) 허은달서588-0097/27290-2018-00149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 매매
최다물건보유, 전화주세요 588-0097

★경남진해구 임야매매 132,232㎡(40,000), 당65만, 산업단지허가
물류부지, 제조공장부지 가능, 부산
녹산공단 바로옆 010-9973-0097

★성서대로변공장 매각/당535 대4,600㎡ 건5,700㎡
동력600kw 010-9973-0097

★칠곡 동명 임야 매매 당15만 110,00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010-9973-0097

★성서 공장 매각 당430만 대42,885㎡ 건53,203㎡
동력1,000kw 010-9973-0097

★창녕대합면토지 매매 대15,720㎡(4,755) 당35만, 공장허가필
(공장건축도가능) 010-9973-0097

성서기계공장급매 당510 만, 대1501, 건1006, 전300k, 호50t, 25t, 층고16m, 8m, 도35m접 010-7542-8733

서 구

대동부동산 서윤희, 서구564-8200/27170-2022-00031

月1950 스타벅스 대720, 건2170, 주차완벽 37억인수, 프랜차이즈入 月2000만, 건380 최고상권, 대로코너 35억인수(초역세권) 010-2509-9996

고령덕곡계획관리 15,000㎡ 당21만 캠핑장
관광농원 적지 053)284-0076

상가 코너 분양상가2, 3, 4층19억 각층384㎡, 月610出 아파트 밀집지역 층별 분양 가능 053)284-0118

대지부동산 임유현, 서구561-6561/27170-2016-00067

호텔·모텔매물접수
모텔 사우나 7억인수(융有) 직영중, 시설양호, 대270, 상가240만수입 053)561-6561

모 텔, 12억인수(융有), R38 대320, 시설 및 매출양호
모텔 12억인수,(융有),대215 룸36실, 매출5500
상가수입900별도 053)561-6561

모 텔13억인수,융有,대209,R33 배관까지올리모델링,매출5500
호텔 23억인수(융有) 대350 룸48, 준신축
시설최상 053)561-6561

호 텔26억인수융有대3100,R53 실,신축수준,매출1억이상
대구호텔매매 대지 310
객실50실, 매가95억 053)561-6561

★병원 상가부지
30M 코너, 준주거 2864㎡(866), 당1400만
원대오거리 인근 053)719-4095

온누리부동산 양현석, 서구20일-공시공고27170-2020-00012

연수익6%코너상가
11억/月1800出 보1억 융25억
공실無, 대1425㎡ 053)572-0409

2호선코너상가주택
8억/月200만出 대단지 주차有
공실無, 상권확실 010-5432-9578

감도높은 광고효과!
바로 매일신문 광고입니다.
每日부동산 안내
TEL.053)656-4448
FAX.053)656-1118

고수익코너통상가
39억月1650 出,E/V有,주차有, 우수업종
명품상가, 대713㎡ 010-5432-9578

시세이하카페건물
투자금15억 매13억 방갈로와
멋진뷰, 대1792㎡ 010-5432-9578

2호선코너특급상가
22억 月801만 목좋은 노다지 황금상권
대349㎡, 건1022㎡ 010-9760-5069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月4,500만, 융자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초역세권 전면최상통상가 대565㎡, 역출구앞 특급바글상권, 공실無
39억, 月1,600만 010-8896-4599

초대단지 개발호재
특급상가 일반상업, 초대박 투자용, 대288㎡
몽땅13억9천 010-8896-4599

달구벌대로 통상가
및 나대지, 50억~1,000억대
달서구, 수성구, 초역세권
A급물건, 다량확보 010-4501-3935

중구 역세권 단층
급매 대450㎡, 시세이하 투자최상
010-3851-5504

※급 모텔※
대223″, 객실19개
도로 4차선접, 융有
3억7천인수 053)572-0410

(주)삼성부동산 조정현, 서구568-8989/가1-13-1978

구미 공단 (공장-물류)
대지46,971㎡, 건물28,840㎡
3.3㎡ 170만 053)557-9734

月3100전층약국병원
대1,040㎡, 건2,636㎡, 27억인수
전층 약국 병원입주, 사거리코너
최요지 010-6547-4488

月3100전층약국병원
대1,040㎡, 건2,636㎡, 27억인수
전층 약국 병원입주, 사거리코너
최요지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빌딩
대1,650㎡, 건6,877㎡, 당5,000만
100억인수, 약국+병원빌딩최고자리
010-6547-4488

교회나 사옥 최적 빌딩
대652㎡, 건999㎡
14억 인수, 1만세대 밀집지
010-6547-4488

수성구 요양병원 매매 대787㎡, 건4999㎡, 70억
인수, 병상180개, 보10억
월5천만出, 대로접 010-6547-4488

月4700전층병원빌딩
42억 인수, 대925㎡, 건3800㎡
전층 병원 입주
대로접 최요지 010-6547-4488

★모텔급매 대지470, 방33 매매29억
★대지330, 방34
매매86억, 매출1억이상
010-8029-8118

단층 대지 750㎡
공장, 창고, 사무실, 사옥, 카페, 식당
강력추천, 큰차진입, 올리모델링
당, 1천만원 053)557-9770

4층 통상가
도25m 양방향, 대335㎡, 연773㎡
대단지A, 안정적인상가입점, 月650만
보.융안고, 11억인수 053)557-9770

상가 3칸 대지325㎡ 연304㎡
도로35m, 교통편리, 차량관련 추천
식당, 카페, 농 수산물, 식자재, 창고
가구대리점, 몽땅13억 053)557-9770

모텔 ″급매물″
방10개, 상가2칸, 3층통상가, 올수리
도25M코너″직접운영 강력추천″
月600만+, 몽땅9억 053)557-9770

3층 통상가
대지815㎡, 대로35M 교통편리
사옥추천″시세차익 투자 귀한매물
月600만, 10억인수 053)557-9770

상가주택
올리모델링, 엘베有, 재개발A코너
최요지, 입점이 좋은 귀한매물
月570만, 6억5천인수 053)557-9770

대형마트 몽땅65억
대2,630㎡, 건3,990㎡
대형마트 성업중, 시세이하
사정상 급매 010-2234-2892

특 급매 상가175억
대5498㎡, 건4395㎡, 2호선초역세
권, 대로코너 시세이하 매매, 돈벌수
있는상가, 상담환영 010-2234-2892

급매매 상가 75억
대1464㎡, 건3572㎡, 초역세권 병원
프랜차이즈 최적, 시세이하, 사정상
급매, 투자상담환영 010-2234-2892

신축부지 대로변코너 상업지역
평리동, 대317㎡, 매25억
3.3㎡당 2600
절충가 010-3805-8324

메디컬 빌딩
대883㎡, 36억/1900出,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입점, 지하철 초역세권
꿈의 상가 053)557-9740

달구벌대로
대669㎡, 69억/4500出, 메디컬빌딩
지하철역세권, 보시고결정하세요
053)557-9740

(주)대진부동산 이승열, 서구566-6400/27170-2020-00017

★신축 올병원 건물
月9000 보10억 안고 매180억, 대1480㎡
건4941㎡, 약국입점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대610㎡, 건1980㎡, 月1600만
매43억5천 보2억4천안고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보5억안고, 매60억, 대522㎡, 건1500㎡
月1700 프랜차이즈 입점 053)566-4488

상권확실 특급상가
초역세권 대1009㎡, 공실無 당3450만, 총105억
보16억, 月2900出 053)556-3600

월세많은 4층상가
총12억7천月470出
대219㎡, 도20x8M 053)556-3600

16면 계속

코로나로 개막부터 삐걱…역대 최다 13연패 악몽

삼성라이온즈
KBO 2022시즌 결산 〈상〉리그 7위 아쉬운 마무리

8일 삼성라이온즈의 2022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 SSG랜더스전이 열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올 시즌 처음으로 2만4천석의 관중석을 가득 채웠다. 숨 가쁘게 달려온 144경기 마지막은 6대1 승리로 마감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삼성은 올해 66승2무76패로 리그 7위로 시즌을 마쳤다.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76승 9무 59패로 동률이었던 kt위즈와 1위 결정전(타이브레이커)에서 아깝게 1점차로 패하며 2위에 자리했던 삼성은 한 해만에 5계단을 미끌어져 내려왔다.

완전체로 시작 못하며 힘 잃어
5월 반짝 반등 움직임 보이다
연패에 허삼영 감독 자진사퇴
백정현·오승환·구자욱 등 부진
신인 선수 재발굴 희망은 남겨

올 시즌 삼성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팀 창단 최다 13연패의 굴욕을 맛보기도 했고 사령탑의 교체도 겪었다. 하지만 신인 선수들의 재발굴과 시즌 막판 선수단의 짜임새가 더 좋아지면서 내년 시즌을 향한 희망은 충분히 남겼다.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삼성은 이제 남은 과제를 풀고 내일의 희망을 다시 품는다.

◆시작부터 시즌 꼬인 삼성

지난 시즌 오랜 암흑기를 뚫고 6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 '왕조의 귀환'을 알렸던 삼성은 불과 한 시즌 만에 다시 하위권으로 쳐졌다.

개막부터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히면서 완전체로 출격하지 못했던 삼성은 주전들의 줄부상과 주전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순위는 더 떨어졌다.

올해 4월 2일 수원 원정에서 kt위즈와 개막전을 치른 삼성은 개막전에서부터 내야수 오재일, 외야수 구자욱, 선발 백정현 등 1군 주축 선수 6명(야수 3명·투수 3명)이 합류하지 못했고 개막 하루 뒤에는 내야수 김상수와 외야수 김동엽까지 1군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힘을 내지 못했다. 선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컨디션 난조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올 시즌 시작부터 삼성을 휩쓴 것이다. 출발부터 꼬인 삼성은 시즌 첫 20경기에서 7승 13패(승률 0.350)에 그쳤다.

◆반짝 반등에도, 13연패 그늘 깊어

부진했던 4월을 지나 주축 선수들이 하나 둘 돌아오면서 5월 반짝 반등을 이뤄내기도 했다. 삼성은 5월 6연속 위닝시리즈를 달성하는 등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24승25패 승률 0.490로 두산베어스에 이어 리그 6위까지 올랐고 5강권 싸움을 넘보나 싶었다. 5월 29일 LG전에서는 피렐라가 4안타 경기로 4할 타율로 올라섰고 구자욱까지도 4안타를 치며 부활의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작된 연패는 올스타 브레이크인 리그 전반기 끝까지 이어졌고, 7월 22일 후반기가 시작한 뒤, 2경기 더 패하면서 구단 창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최다 13연패의 악몽을 꿨다. 팀 순위 역시 9위로 내려앉았다. 3년 만에 약속의 땅 포항구장에서 경기도 치렀지만 하위권을 맴돌던 삼성은 결국 8월 1일로 허삼영 감독이 자진사퇴했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박진만 감독 대행이 남은 50경기를 이끌며 28승 22패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앞선 연패의 그림자를 모두 지워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믿을맨들의 부진 이어져

올 시즌을 앞두고 포수 김태군과 김재성을 영입, '안방마님' 강민호를 4년 36억원의 FA 계약을 통해 붙잡으며 포수왕국을 천명한 삼성.

지난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63으로 호투하면서 FA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좌완 선발 백정현, 5년 120억원의 비FA 다년 계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스타 구자욱, 지난해 세이브왕 오승환부터 에이스 뷰캐넌, 전천후 맹활약을 펼친 피렐라와 재계약에 이어 구속 150㎞의 강속구를 장착한 수아레즈를 새로 영입하면서 완성된 외인 삼인방까지 삼성은 한층 더 강화된 전력을 갖췄지만 막상 시작한 시즌에서는 아쉬움만 남았다.

백정현은 올해 선발 12연패의 부진을 거듭하다 끝내 4승 13패로 시즌을 마감했고 오승환은 주요 경기에서 블론세이브를 기록 지난해 44세이브에 못미치는 31세이브 7블론세이브로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타율 0.306 22홈런 27도루로 기대감을 높였던 구자욱 역시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며 올해는 타율 0.291 5홈런 11도루에 그치는 등 베테랑들의 부진이 이어졌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303kg 금빛 역도 번쩍
권대희 대구 첫 3관왕

19세 이하 남자 81kg급 쾌거
인상 138kg·용상 165kg 압도
女 자전거·男 양궁 2관왕 순항



울산 2022

울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구 선수단 첫 3관왕의 주인공은 역도 종목에서 나왔다.

전국체전 개막 3일차인 9일 대구 역도 신성 권대희(대구체고 1학년·사진)가 역도 19세 이하부 남자 81kg급 인상과 용상, 합계부문 모두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며 3관왕을 달성했다.

권대희는 이날 인상에서 138kg, 용상에서 165kg, 합계 303kg을 들어올리며 3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용상에서 1차 시기 165kg에 성공한 뒤 2차 시기 175kg과 3차 시기 182kg에 도전해 아쉽게 실패했지만 경쟁자들과 격차는 이미 벌어진 후였기에 무난히 우승을 차지했다.

권대희는 앞서 지난 6월 제94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용상에서 181kg을 들어 올려 오랫동안 깨지지 않던 180kg대 기록을 넘어 남자고등부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3관왕으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미 중학생일 때 참가한 전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중학부 신기록 수립으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타고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힘과 기술, 성실한 훈련으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권대희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고는 몸 상태가 괜찮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다행이다"며 "용상 3차 시기에서 신기록에 도전했지만 실패해 아쉬웠다. 하지만 아직 다음 기회들이 남아있으니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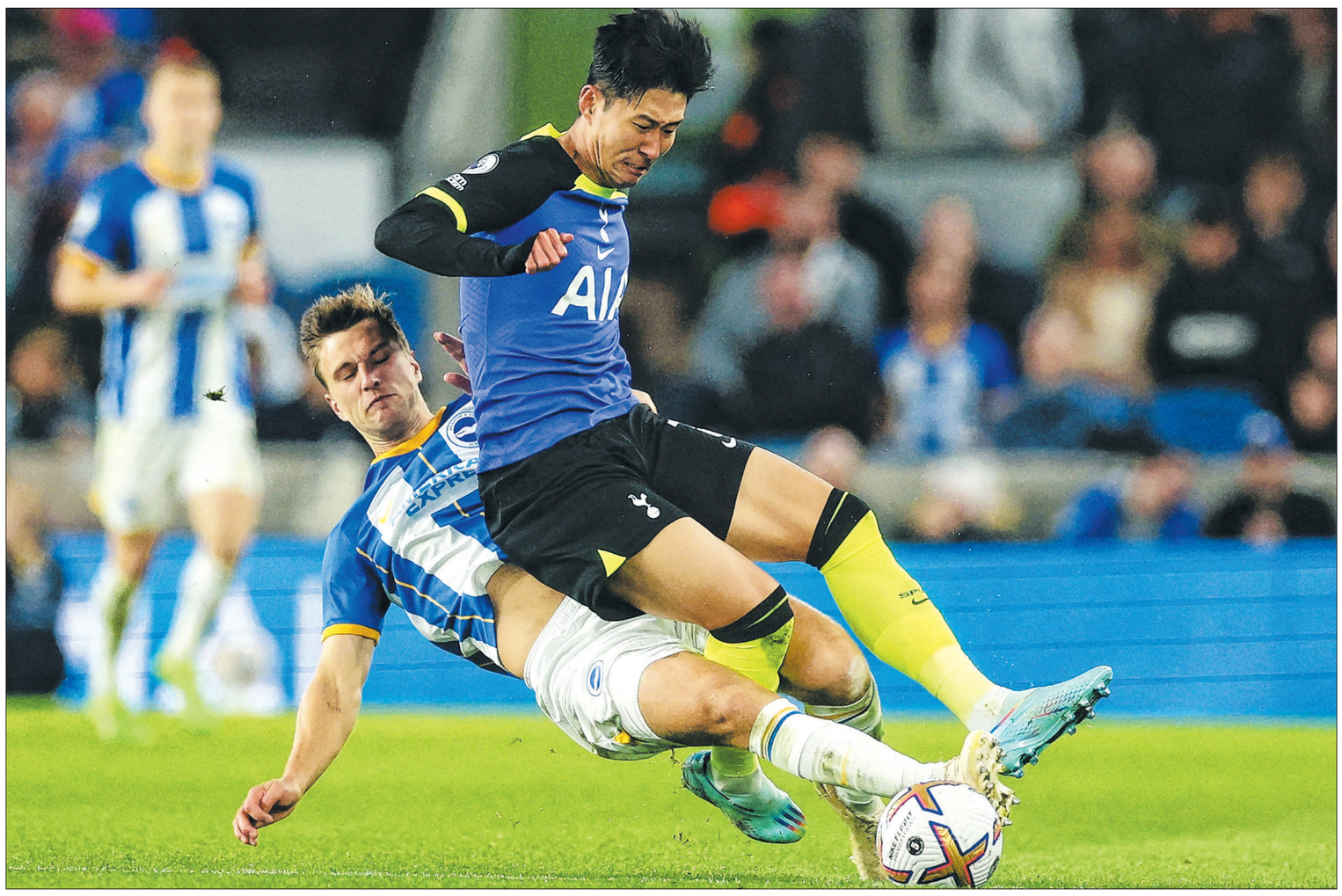
이날 대구 선수단은 자전거 여자 일반부에서 신지은(대구시청)이 전날 3㎞ 개인추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4㎞ 단체추발까지 2관왕에 올랐고 양궁 남자 대학부 서민기(계명대 3학년)가 전날 70m에 이어 50m까지 금빛 과녁을 명중하며 각각 2관왕에 올랐다.

경북 선수단 역시 강세 종목으로 예상된 양궁과 수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순항 중이다.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고교 궁사' 김제덕(경북일고)은 이날 울산문수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 19세 이하부 3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90m 경기에서 309점으로 우승한 그는 30m 경기에서는 357점을 기록해 정상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다만 이날 30m 경기에 앞서 출전한 50m에서는 4위(337점)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경북은 수영 여자 일반부 계영 8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전국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족구 종목 여자 일반부에서 대구 대표팀이 우승을 거머쥐며 눈길을 끌었다. 족구 여자 대구 대표팀은 이날 울산 현대예술관 체육관에서 진행된 결승에서 인천 부평조이킥을 세트 스코어 2대1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체전 시범 종목으로 지정된 족구는 남자 일반부 14개 팀과 여자 일반부 16개 팀으로 나뉘어 8, 9일 이틀간 진행됐다. 울산에서 김우정 기자



9일 영국 브라이턴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와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의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손흥민이 거친 태클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크로스, 케인 결승골 '43번째 합작골'

손, EPL 10라운드서 2호 도움
브라이턴전 1대0 팀 승리 견인

손흥민(토트넘)이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토트넘은 9일 영국 브라이턴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2분 해리 케인의 결승 골을 도우며 공격포인트를 쌓은 뒤 후반 35분 이반 페리시치와 교체 아웃됐다.

사우샘프턴과 1라운드(토트넘 4대1 승) 이후 약 2달 만에 나온 손흥민의 시즌 2번째 도움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에서 3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케인 듀오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1일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패배(1대3)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리그 3위(승점 20· 6승 2무 1패)를 유지했다.

공식전에선 아스널전, 프랑크푸르트(독일)와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3차전(0대0 무) 이후 3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손흥민과 케인을 최전방에 배치한 토트넘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브라이턴의 골문을 겨냥했다.

9월 A매치 기간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날카로운 프리킥 감각을 과시한 손흥민이 전반 4분 프리킥 키커로 나섰는데, 슈팅은 상대 골키퍼 로베르트 산체스에게 막혔다.

전반 13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중거리 슛이 골대를 훌쩍 넘겼지만 전반 22분 코너킥 이후 토트넘이 공격을 이어갔고,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케인이 머리로 받아 넣었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15골)에 이어 EPL 득점 2위를 달리는 케인의 리그 8호 골이다.

더불어 EPL 역대 최다 합작 골 기록을 보유하며 '최고의 콤비'로 꼽히는 손흥민과 케인은 43번째 골을 함께 만들어냈다. 연합뉴스

황선우 계영 금메달…2년 연속 5관왕 시동

기계체조 여서정 2관왕 달성

이번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큰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스포츠 스타들이 잇따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차세대 한국 수영 간판으로 떠오른 황선우(강원도청)는 9일 울산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계영 800m 결승에서 7분29초05를 기록해 14개 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일반부로서 전국체전에 첫 출전해 대회 첫 경기부터 금메달로 좋은 출발을 알린 황선우는 2년 연속 전국체전 5관왕, 최우수선수(MVP) 선정에 한발 더 다가섰다.

10일 주 종목 자유형 200m에 나서는 황선우는 11일 계영 400m, 12일 자유형 100m, 13일 혼계영 400m 순으로 레이스를 펼친다.

2020도쿄올림픽 동메달을 목에걸며 한국 여자 기계체조 '샛별'로 떠오른 여서정(수원시청)은 전국체전 2관왕을 달성했다. 울산에서 김우정 기자

대구FC '무서운 뒷심'

수원FC 2대 1 제압 3연승 질주…강등권과 격차 벌려

프로축구 대구FC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어느덧 리그 3연승이다.

대구는 9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35라운드 수원FC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2대 1로 이겼다.

경기 초반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 수원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이어갔고, 대구는 물샐 틈 없는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다.

수원은 11분 이승우와 정동호를 동시에 투입하며 다소 이른 시간에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선제골은 안정적인 운영을 택한 대구의 몫이었다. 21분 후방에서 뿌린 롱패스를 받은 제카가 머리로 황재원에게 연결했다. 상대 선수와의 경합에 이긴 황재원이 문전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쇄도하던 고재현이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했다. 득점까지 이어지는 연계의 간결함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수원의 반격도 매서웠다. 이승우를 앞세워 공격을 전해한 수원은 30분 기어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원투패스를 주고받으며 골문 앞까지 침투한 이승우가 지체 없이 슈팅을 날려 만든 득점이었다.

추가골이 간절한 순간, 대구의 장기인 세트피스 플레이가 빛났다.

57분 오른쪽 코너킥과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은 세징야가 공을 높게 올렸다. 조진우가 펄쩍 뛰어올라 헤더로 공을 골문 앞으로 보냈고,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홍정운이 오른발로 골을 넣었다.

독이 오른 수원은 파상공세를 펼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날 승리로 리그 3연승을 달리게 된 대구는 승점 41점으로 9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같은 날 10위 수원삼성과 11위 김천이 모두 무승부를 거둔 덕분에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게 된 대구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日 소프트뱅크 30명·대기업 호텔 37명 입사 '대박'

〈3년간〉

영진전문대 특별한 경쟁력

영진전문대가 남다른 취업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취업이 활발한 일본IT과와 코로나19 속에 빛난 호텔항공관광과가 있다.

◆IT인재 양성 산실인 컴퓨터정보계열

9일 영진전문대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일본 취업반인 일본IT과의 내년 2월 졸업자 취업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 33명 중 32명 조기에 취업한 것이다. 일본 소프트뱅크에 전국 2·4년제 대학 중 최다인 30명의 합



일본 소프트뱅크에 합격한 영진전문대 일본IT과 졸업생들이 축하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영진전문대 제공



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과 학생들이 교내 항공기내실습실서 실습에 나선 모습. 영진전문대 제공

일본IT과
전국 2·4년제대 중 최다 합격
8년 연속 졸업자 모두 日 취업

격자를 배출했다.

영진전문대의 컴퓨터정보계열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 인재 배출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다. 국내·외 취업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07년 일본IT기업주문반(현재 일본IT과)을 개설했다.

일본IT과는 국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취업할 해외 현지를 직접 찾아간다. 2학년 여름방학에 해외 현지 연수 프로그램으로 일본 어학연수는 물론 기업 현장 방문, 기업관계자 특강 등을 통해 해외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고 있다.

학기 중에는 일본 기업체 대표나 관계자가 대학을 수시로 찾아와 기업 설명회·특강, 1대1 개인 면접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일본IT과는 취업에서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졸업자 모두가 일본 기업에 입사했다. 코로나19 상황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5명, 58명이 취업을 했다.

일본 기업 3곳으로부터 취업 내정을 받은 3학년 김진섭 학생은 "같은 반 학우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이런 활동이 일본 입사 평가에서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종율 일본IT과 학과장은 "일본IT과 학생은 전공에 일본어 능력까지 갖춰야 해 야간 자율학습,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3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로 기업에서 진행되는 기획·설계·제작 등의 과정을 팀별로 진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 속 빛난 호텔항공관광과

영진전문대의 호텔항공관광과도 국내 대기업 특급호텔과 사무직은 물론 해외 기업 취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호텔항공관광과는 최근 3년간 호텔신라제주 13명과 호텔롯데제주 2명, 파라다이스호텔 5명, 메리어트호텔 7명, 힐튼경주호텔 4명, 경주라한호텔 6명 등 모두 37명이 대기업 호텔에 취업했다.

대기업 사무직에서도 성과를 올렸다. 항공반은 최근 2년에 걸쳐 현대모비스 3명, 현대해상 1명. LS전선 1명 등 5명이 입사했다. 또 올해 LG그룹 계열 D&O곤지암리조트와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2학년생들이 하계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이들 중 3명이 취업했다.

해외 취업에서도 빛이 났다. 지난 2020, 2021년 졸업자 중 일본 취업을 희망한 25명은 일본 간사이공항, 하얏트힐튼오키나와, 일본관광공사(JTC) 등에 전원 합격했다. 내년 졸업예정인 2학년생 13명은 일본 현지 인턴십에 참가하고 있다.

이로써 호텔항공관광과는 최근 3년간 대학 관광 분야로는 매우 드물게 평균 60%를 웃도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항공관광업계와 탄탄하게 다져온 산학협력과

호텔항공관광과
호텔신라·파라다이스·힐튼…
재작년부터 전원 日 기업으로

주문식 교육이 힘이 됐다.

강병주 호텔항공관광과 교수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호텔항공관광과는 호텔, 항공, 일본 취업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호텔리어와 항공승무원, 공항 지상직, 해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계명문화대 제과제빵과 내년에 독립

식품영양조리학부서 분리 신설
자격증 특강 통해 실무역량 강화

계명문화대가 제과제빵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외식 산업 발전과 함께 제과제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인력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계명문화대는 체계화된 맞춤형 실무교육을 위해 기존 식품영양조리학부에 속해 있던 제과제빵전공을 독립학과인 제과제빵과로 분리·신설해 2023학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제과제빵과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3.0)과 함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어 재학생 대부분이 장학금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제과제빵과는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최신 기자재를 겸비한 최상의 실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을 실습한다. 또 케이크와 베이커리, 공예, 바리스타 등 현장 제품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학생과 산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공 자격증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과제빵 분야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해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처음으로 신설한 제과제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특강을 개설했다.

이 외에도 전공 및 융복합(다른 전공 융합)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을 높여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입상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실무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국의 특급호텔과 유명 제과점이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학원, 대형 외식업체 베이커리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 창업을 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명문화대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모습. 계명문화대 제공

정양식 제과제빵과 책임교수는 "현장 경험이 많은 우수한 교수진들과 함께 전문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제과제빵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맞춤형 취·창업 지원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계명문화대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산업체와 학생들 수요에 맞춰 제과제빵과를 비롯해 ▷해외서비스경영과 ▷국제협력선교과 ▷반려동물보건과 ▷펫토탈케어과 ▷디지털융합과 ▷의료기기과 ▷태권도시범공연과 ▷웹툰과 ▷디자인학부 타투디자인전공 등도 신설했다.

무엇보다 전직과 재취업, 창업 등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들(만 25세 이상)들을 위해 수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장학혜택을 제공하고자 성인학습자를 별도로 모집한다.

성인학습자 모집학과로는 ▷유아교육과(3년제) ▷SNS마케팅과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커피문화경영전공과 외식사업전공 ▷사회복지상담과 ▷금융부동산과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전공과 조리전공 ▷플라워·가드닝과 ▷의료재활과(3년제) 등이 있다. 서광호 기자

훈련소장– 황환수프로



유튜브—황프로의 임팩트 아카데미

- 골프레슨은 이제 그만!
- 강력한 훈련이 정답입니다.
- 골퍼들 곁에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찾아갑니다.
- 장비도 레슨도 아닌 훈련으로 다진 골퍼몸이 해결책입니다.
- 시지동 고산농협 뒷편 300평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 네이버 조회 프랜즈스크린 시지점

➡ 교정안되면 훈련비용전액 돌려드립니다. (단,오른손목교정은 제외)

문의전화
010-5543-4381

직접 띄운 국산콩 100%
생청국장
1kg 15,000원
2kg부터 택배무료



나들목 버섯 & 코다리
NADULMOK Mushroom & Braised Pollack Restaurant
대구 동구 팔공산로 1187. 2층 주문 010-2544-4233

‘칠곡, 평화로 물들이다’

낙동강 호국평화기획전





2022.10.14.(금)~10.30.(일)



호국 사진전

6·25전쟁당시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와 호국 평화의 의미를 담은 사진전

일시: 2022.10.14(금)~10.30(일)
장소: 칠곡호국평화기념관 1F
(매일 9:00~18:00, 월요일 휴무)

평화 드론쇼

전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며 밤하늘을
평화로 밝게 물들이는 화려한 드론쇼

일시: 2022.10.28(금),30(일)
(28일 18:50, 30일 21:30경)
장소: 칠곡보생태공원 일원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을 검색해 주세요.

주최 | 每日新聞 후원 | 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와 협력 'IT 융합 인재' 산실로



3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는 대구보건대 컴퓨터정보학과 학생들이 각종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대구보건대 제공

대구보건대 컴퓨터정보학과, RIS사업 선정 5년간 20억 받아

대구보건대 컴퓨터정보학과는 1990년 사무자동화과 개설 후 30년 동안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과 현장실무중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이 학과는 IT융합 인재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고 혁신적인 학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 스마트 융합 신기술 인재양성 공유 학과로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RIS 사업은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학과는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4억원, 5년간 모두 2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 멘토링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실무교육 ▷최첨단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기자재 구축 ▷전시회 견학과 기업 체험학습 ▷취·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실험실습제작과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별도의 월 30만원의 훈련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취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산업현장 체험활동 등 교육커리큘럼 개편에 나섰다.

차별성을 내세운 교육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8년간 1대1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취업목표설정 ▷인성과 취업 마인드 교육 ▷직무 관련 기업분석 ▷자기PR과 스피치 ▷모의면접 트레이닝 등 전문 강사진을 구축해 실제와 같은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한다.

이 학과 동문은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효성병원 ▷보강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IT, IT융복합, 스마트헬스케어 등의 분야로 진출했다.

최첨단 교육환경 마련 기업 멘토링 실무교육 참여 학생에 지원금도

국제화·전문화·기능화 시대에 적응해 취업 분야 개척에도 결과물을 내고 있다. 특히 항공사 지상직 승무원 분야 취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상직 승무원에 성공적으로 취업한 학생들은 "의료서비스와 병원코디네이터, 전산교육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정규과목 외 32시간 동안 예절, 스피치 등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학생들의 다양한 취업처 확보를 위해 지역의 산업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있다. RIS 사업단 참여기업 200여곳 업체와 취업을 연계 지원하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한다. 2019년에는 일본 IT기업 취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학생들을 국제교류원 일본어 강좌 프로그램을 연계해 일본 취업동아리를 결성했다. 일본 IT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8개월간 밀착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창업과 스터디 활동, 신입생 적응 상담, 핵심역량 직무 코칭 프로그램, 융합역량 자격증 완전정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학생들은 ▷정보처리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콘텐츠크리에이터 ▷오라클 OCA/OCP ▷LPIC ▷ADsP ▷ICDL ▷GTQ ▷디지털영상편집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등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대경기술지주 발굴 8곳, 중기부서 지원

올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연구개발·사업비 최대 7억원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이하 대경기술지주)가 직접 발굴하고 투자한, 대구 스타트업 8곳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에 모두 선정됐다.

대경기술지주는 대구와 경북의 대학 11곳과 대구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됐다.

팁스는 대경기술지주와 같은 운영사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2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 사업이다.

대경기술지주가 육성·투자한 기업 중 올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곳은 ▷예성글로벌 ▷나노팬택 ▷엘엠엔틱바이오텍 ▷투와이 ▷뷰전 ▷지오로봇 ▷제르나바이오텍 ▷나다디지탈 등이다.

대경기술지주는 2020년 8월 팁스 운영사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모두 19곳의 스타트업을 추천했고, 약 100억원의 팁스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했다. 지역 대학의 원천기술과 산업현장의 고급기술을 사업화하는 대구경북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8곳 또한 대경기술지주가 운용하는 지방기업 창업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다.

현재까지 대구경북 스타트업 104곳에 투자해 383억원의 매출과 48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최근에는 운용 중인 펀드규모를 300억원대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추진 등 투자재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경기술지주 김범준 대표(계명대학교 부총장)는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헬스케어 등 대구시 5대 미래산업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투자해 대구형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대구과학대 국제세미나실에서 지난 4일 진행된 '다이나믹 티-스타트업'(Dynamic T-Start Up)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학생들이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과학대 제공

대구과학대 창업역량 강화 '다이나믹 티-스타트업' 실시

대구과학대는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하고자 이달 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다이나믹 티-스타트업'(Dynamic T-Start Up)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취·창업정보센터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창업 워크숍 ▷드림창업 경진대회 ▷현장 맞춤형 예비창업역량 강화교육 ▷성공창업 시제품 제작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식을 높인다.

학생들 간에 소통을 통해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발굴과 팀 프로젝트 발표 연습 등을 진행한다.

또,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확립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특허출원과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림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경우 포상 및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은 "아무런 준비과정 없이 학생들에게 무작정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진과 우수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학생들이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키우도록 하겠다"며 "자신만의 아이디어 제안에서부터 특허출원까지 학생들이 창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서광호 기자

일반부동산

달 성 군

▣다산들공인(박영수,다산)47830-2020-00005
공장매매 대366, 건120
전70k, 당130만
/대500, 건70, 전50k, 당50만
땅 계획관리, 788, 2차선코너
농막有, 당26만 054)955-4949

▣한국공인중개사(엄잔섭,달성군)가18-321
달성1,2차/국가산단/테폴 공장매매 / 임대
공장전문
경력21년 010-4504-6532

▣허브시티(김잔삼,옥포)27710-2021-00028
세천 공장 대지441㎡
1층 263㎡
2층87㎡, 복층구조, 천고10M
호이스트2.8t, 동력30kw, 2014년준공
매매11억 010-3503-1588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북구)가-15-2290
최신축 초고수익무인카호텔매매
대6,416㎡,건3,491㎡
최신력셔리인테리어, 특실력셔리명품
1실1주차,29실, 매출8천이상,인수12억
(융)순수익률40% 010-7437-5535

▣한백공인중개사(김성현,북구)가15-2624
★창고, 공장★ 대145
건45
16억9000 농산물시장인근
칠곡중앙대로변
010-8588-7112

달 서 구

해은부동산(권해은,달서) 27290-2017-00024
건축가능 (커피숍&카페, 레스토랑, 식당여관)
①팔공산길 자연녹지1730p 당150만
위치최고②갓바위길 자연녹지9000p
당55만, 전망최고 053)525-7946
③가창한복판, 자연녹지, 800p
당600만, 1300p이상 효과
④가창의요지, 제1종1/2
자연녹지1/2, 1200p, 당700만
투자확실 053)525-7946

올병원할자리 (리모델링)
진천역 도보2분, 145p, 지하1층, 지상4층, 매65억, 신축시145+135=합280
가능, 가격도낮아짐 053)525-7946

투자용땅 대구시땅, 투자보장
자연녹지 34,000p
IC4분거리, 입금8억5000, 골프연습장+파쓰리나인홀, 둘레길승마장②농원
농장, 약초, 수목재배 053)525-7946

개발용땅 (고령)15만평
당1만원=15억
※위치최고(요세지)용도①실버타운
②요양병원③유원지개발④농원농장
⑤절터⑥추모공원 053)525-7946

공기물좋은곳 가창 자연속전
원목조건물1채, 숲속주택1채, 2층 원두막, 1층원두막, 돌황토방, 연못3곳
기타땅6000p, 급매6억5천525-7946

최고톱모텔 지금투자하라 코로나가 사라진다, 건물2채(무인45실, o.p15실)
E/V3대, 급매70억, 융자58억, 인수금
12억, 자산가치120억유지 525-7946

▣LG부동산(박종수,달서)27290-2022-00098
★2층 통상가★
대160㎡, 상권요지, 도로40 x 8M
몽땅14억 달서구
053)643-8988

▣로얄공인중개사(김성현,달서)가-17-859
A급 상가, 아무리가물어도끄떡없
는풍년상가, 월성단지1만4천
세대중심아파트상가, 전용23"(1층)
현 한의원성업중, 보증금7000, 月110
매가 5억1천 010-3509-9892

남 구

▣부자공인(최원정,남구)27200-2022-00002
※호텔 급매
20억인수 대1,056㎡
룸35
月1억出, 장부공개 053)263-7101

※모텔 급매 모텔물건
다량보유
대구동구, 6억인수, 1실1주차, 무인, 룸20
※호텔 룸52, 40억인수
053)263-7101

※펜션부지 남해
※해변 끼고 30,265㎡
매17억
053)263-7101

동 구

▣모두부동산(안근희,동구)27140-2020-00130
평화시장 최요지 상가
9억인수 대150㎡
月400만
053)942-4080

금탑부동산(박정자,동구) 27140-2016-00053
공장창고신축매매
★동대구IC, 팔공산IC 10분
평광동 대180~240,건90~110
다수, 당380만

★동대구IC, 팔공산IC 10분
방촌동 대지180~250"
건평80~150"다수
당620~650만
053)964-4849, 010-5100-5400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수성)27260-2016-00126
인도어골프장 2500평
1만평
3만평, 위치최상, 대구시내 비거리
150~250M,매출급성장,대단지10~20
분거리,극비진행중 010-3701-0772

月1억 240억,조정가,수성구유명
커피숍, 병원, 약국, 대형
매장,신규아파트밀집지역,대출 최
대지원, 교통좋고-상권좋음, 향후
10년투자가치최상 010-3701-0772

月1500만,총40억
의류,물류중심,유동인구,대출80%
지원,상권좋고,유명브랜드밀집지역
교통좋고,장사잘됨010-3701-0772

▣리더스트럼프(노유진,수성)27260-2017-00196
※커피 카페 부지
50억, 체인점, 전시장, 사옥 적지
수성못밑 대도로접, 답1170㎡
융21억안고 극비매 053)768-9000

※임대모델 하우스 부지
동대구로수성
구,도70m접,권장업종,전시장,체인점
적지,나대지730㎡,근린상업,보1억
月1600만,조정가능 053)768-9000

▣동진부동산(권영철,수성)가-16-3703
매110억 보3.5억
융60억
月3,200만出 달구벌대로
코너
대지넓음 010-3509-4725

매15억8천 보7500만
융10억
5억5백인수, 月315만出
달구벌대로, 4층건물
주변 개발호재多 010-3509-4725

포항양덕 땅,건물
2,240㎡(679), 대로코너, 영일만
대교호재, 임대료수입月1100만出
매43억 010-3509-4725

황금부경부동산(정지혜,수성)27260-2021-00122
★다이소 급매★
月1050 대496㎡
건595㎡
10억인수 053)762-6100

스타벅스 초급매
月1350 대860㎡, 건330㎡
최고상권, 급처분
11억인수,몽땅33억 010-5683-6100

희망부동산(추장우,수성) 27260-2018-00150
月3400병원약국빌딩
대1038㎡, 보7억, 매68억
구미 최고상권, 대도로코너
053)764-2009

시세반값 급매 영덕군
유스호스텔,요양병원,기업연수원 등
최적지, 대지2,000", 건1,000"
매18억 010-8617-5620

동남부동산(沈宗墣,수성761-7501)가-16-1501
팔공산 땅넓은주택
대2547㎡,건237㎡,일반음식점 용도
총14억5천 053)761-7501

범어동아파트정문앞
상가주택 대360㎡, 건387㎡
신축또는리모델링
몽땅65억 053)761-7501

月1500 병원약국,역출구대로접
대445㎡대단지앞매45억
月730 수성구,역세권대로통상가
유명상권,공실無, 최신축
E/V,매27.5억 010-6630-8648

月960,신축 상가 주택
동대구 메가상권, 4차선접 코너
대273㎡, 매매35억
세융안고 18억 053)756-3131

범어4동2층통상가
자영업자 및 학원 교습소 강추
대133㎡, 매13억5천
융안고 8억 053)756-3131

大邱동남부동산(정희수,수성구)27260-2018-00131
급수성구상가주택
초역세권, 대74, 주인살고, 月370만
매20억 ★파동 도로변 투자용
대67, 매11억3천 053)761-0999

수성동남공인(박정민,수성구)27260-2018-00132
남구 대로변 초역세권 번화가
깨끗한4층통상가, 대327㎡
엘有,공실無,보1억4500만,月880만
出,매35억,융자최대협의,어디 에도
없는전속물건,방문 010-8574-0834

경 산 시

물류 창고 안심혁신도시
대지2000"
공장 창고, 대지500, 신축건물
100,당125만,창고 공장可
010-9468-5022/ 010-3502-0322

고 령 군

▣양지공인(권영희,다산)가-4244-000049
★성서2공단 공장
대4,777㎡
(1445),건3760㎡(1,137),당500만
대형마트(다산독점),대5146㎡(1557)
건1556㎡(572) 010-2878-8945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공장용지 공업지역
1700",1000",계획관리(장)1650"
다산면 5천평 토목완료,건폐율20%
당60만 054)956-9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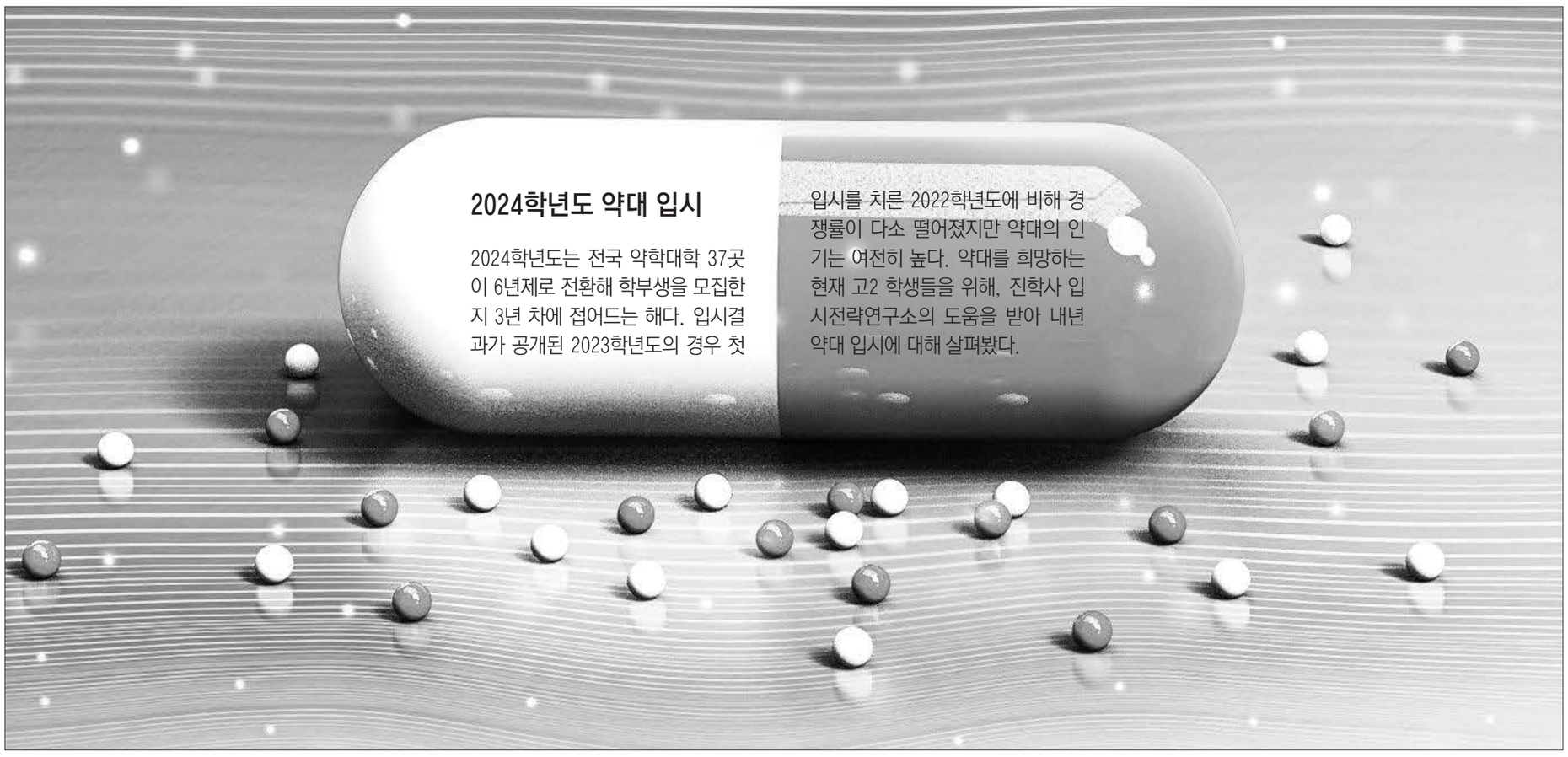
★급급매공장 성산IC근
대520, 건135, 호2.8t, 고10m
매매 평당110만, 감정가100만
대출90% 054)956-9080

의 성 군

※상가 매매 의성군
매매2억 대지149, 점포5칸
보9백, 月100만出
010-4507-7849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 대법원 등기, 문화제청 허가
● 구궁 · 태극성명협회 중앙회장
● 이름덕에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줌(상표 특허출원)
●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
● "돈도 찬기" 작사 손기복, 동동동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 상동 152-60 극락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0 010-3516-6730

제사를 모셔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의 보답이며 효의 근본입니다."
신행상담 / 49제 / 천도제 / 구병시식
구지뽕열매, 사과대추 출하 전 주문받습니다.
대구앞산 성불사 : 053-626-7969



교과전형 가장 많은 30개大…28곳 수능최저 적용

◆교과전형 1등급대 초중반 내신

내년 약대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정원 내 전형 기준, 37개 대학 중 ▷고려대(세종) ▷단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에서 교과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부산대, 순천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동국대와, 2단계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대학들은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은 3개 영역 합 7등급(수학 포함)에서 4개 영역 합 5등급까지 분포한다. 수학 영역은 모든 대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만 인정하고 있으며, 탐구는 대부분 과탐을 지정한 가운데 유일하게 차의과대학만 사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므로 합격자들의 성적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 예로 2022학년도 교과전형에서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2)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 7'의 기준을 적용한 충북대의 경우 합격자 내신성적 70% 컷이 약학과 1.04등급, 제약학과 1.14등급이었다.

그러나 '수학(미/기), 영어, 과탐(2) 3개 영역 등급 합 5'를 적용한 충남대 약학과의 합격자 70% 컷은 1.72등급으로 충북대와 차이가 있었다. 우수한 내신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는 것 또한 교과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종합전형 수능최저 여부에 따라 전략 고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정원 내 기준 29곳이다. 영남대, 계명대를 비롯한 경성대, 순천대, 우석대, 인제대, 제주대, 차의과학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29개 대학 중 경북대, 부산대, 목포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선발한다.

대부분 단계별 전형으로 시행돼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CAU탐구형인재), 충남대(종합Ⅰ_서류), 충북대, 한양대(ERICA)

학종 29곳, 영남대·계명대 제외
경북대·부산대 지역인재전형만
수도권 절반은 수능최저 미적용

는 면접 없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르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꽤 있다. 경희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대(일반전형),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ERICA) 등 수도권에서는 대학의 절반 가까이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강원대, 충북대(종합Ⅰ)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논술전형 수능최저 따라 경쟁률 대폭 하락

가장 규모가 작은 논술전형은 9개 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세종),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에서만 시행하며 총 선발인원은 81명뿐이다.

논술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던 이화여대가 2024학년도에는 5명을 선발하고, 가톨릭대와 중앙대가 3명씩 모집인원을 늘렸다. 고려대(세종)는 약학과에도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해 5명은 논술(논술전형)로, 5명은 논술(지역인재전형)로 선발하면서 선발인원(10명)이 전년도(6명)에 비해 늘었다.

모집 규모는 중앙대가 25명을 선발해 가장 크고 다른 대학들은 10명 이내로만 선발한다. 부산

규모 작은 논술전형 9곳서 81명
신입생 모집 않던 이화여대 5명
수능최저 기준 높아 정시도 대비

대는 10명을 모집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만 선발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 고교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다.

연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4개 합 5등급으로 기준이 높고, 나머지 대학들도 3개 합 4~5등급 수준의 비교적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성균관대는 수능 응시영역에서 수학 선택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탐구 또한 2과목 중 과탐 응시 필수과목을 1과목으로만 두고 있다.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논술 100%로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아 논술 성적과 수능최저 통과 여부가 당락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실제로 중앙대 약학부의 경우 2022학년도 논술전형의 최초 경쟁률은 147.3대 1이었으나 논술고사에 응시하고 수능최저를 통과한 인원이 매우 적어 실질경쟁률이 3.1대 1로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정시는 서울대 제외 수능만 100%

내년 약대 정시 모집은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수능 100%로 선발한다. 서울대는 정시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수능60+교과40'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은 1단계 '수능100(2배수), 2단계 '수능80+교과20의 단계별 전형을 시행한다.

교과평가의 경우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토대로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성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 서울대는 A등급 부여 기준을 '모집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약대의 경우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태도가 나타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화여대가 약학전공 70명, 미래산업약학전공 2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이어 숙명여대(53명), 중앙대(50명), 덕성여대(35명), 성균관대(30명)에서 선발 규모가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약대의 경우 수시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내신은 물론 수능까지 챙겨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더불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은 편이므로, 수시 위주로만 준비하려 하기보다는 정시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지난달 30일 대구 남산초 강당에서 다:행복한 가족 인성놀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가족들.
대구시교육청 제공

역사 현장 속에서 온가족 함께 퀴즈 2·3기 모집합니다

초3~중3 20가족 선착순 접수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심리·정서 회복과 행복감 함양을 위해 '우리 마을 역사 속에서 다 같이 놀자! 다:행복한 가족 인성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2·3기 모집을 오는 11일부터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온가족이 함께 장소와 관련된 역사퀴즈를 해결하고, 행복·감사·명상을 주제로 한 인성놀이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달 30일 대구 남산초등학교에서 1기를 시작으로, 2기와 3기는 이달 21일과 28일 대구교육박물관에서, 4기는 내달 18일 현풍향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운영되는 2기와 3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오는 11일부터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홈페이지(www.dge.go.kr/parent)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수별로 열 가족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평소 아빠가 바쁘셔서 많이 못 놀아주셨지만, 오늘 함께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정서적으로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기자

학부모를 위한 교육 Q&S

교원능력개발평가, 어떻게 참여하나요

Q 며칠 전 학교로부터 교원 능력 개발평가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정통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교원 능력 개발평가가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수업,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알게 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너무 솔직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아이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교원평가의 취지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경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교원평가의 종류는 크게 동료 교원 간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는 학교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의미합니다.

교원평가 대상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의 교원에서부터 상담·보건 등 비교과 교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교원이고, 교원평가 대상 교원에 따라 평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장·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능력을, 일반 교사의 경우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교원평가 결과는 평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교원에게 통보됩니다. 교원은 결과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연수 등의 계획을 통해 보완하고, 우수한 부분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활용해 평가 기준에 미달한 교원이 이수할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수의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 외에도 평가의 대상이 된 모든 교원은 본인의 평가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나이스 프로그램상의 양식이나 학교별 양식에 맞춘 능력 계발 계획서 또는 연수 이수 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교육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맞춤형 연수를 자율적으로 신청해 수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합니다.

◆평가에 참여하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는 모두 교원평가 만족도 조사의 실시 대상입니다.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 11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학부모에게 교원평가 참여를 안내합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학생 및 학부모의 '본인 확인 번호'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분실 시 재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만족도 조사 실시 일자가 되면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http://www.eduro.go.kr)에 접속한 뒤 소속 교육청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고 학부모 본인확인번호(학교별 안내)를 입력한 뒤 연결된 페이지에 표시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설문 문항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교원에 대한 주된 평가 내용이 학습지도,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의 만족도이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교원평가 전 운영하는 공개 수업을 참관한 후 평가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해당 교원의 수업에 참관하지 못한 경우나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교원(보건교사 등)을 평가하는 경우 자녀와 해당 교사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담임 교사나 평가하고 싶은 교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지정해준 교원 모두의 평가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평가 시 유의점은?

평가에 임할 때 감정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모든 객관식 문항에서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다거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학생 생활지도에 소홀하다'와 같은 모호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면 좋을지 등을 상세하게 평가한다면 각 교원이 이를 참고해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발전시켜 교원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원평가는 전 과정이 익명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사에게 평가 결과 또한 익명으로 전달됩니다. 익명 평가 방식은 교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다만, 익명성에 기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근거 없는 비난, 심한 욕설, 외모 비하 등의 내용으로 답하는 것은 평가의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이다 보니 참여의 필요성을 가볍게 느낄 수도 있지만, 자녀의 학교생활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시교육청 학부모고민 들풀교사모임

중국 현대사회 모순…초현실적 풍자



왕칭송, Follow You, 180x300cm, 2013.

왕칭송 개인전 'The Glorious Life'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을갤러리

中 대표하는 현대사진 작가
개방 이후 혼란 냉소적 비판
1997년~2018년 작업물 전시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사진 작가 왕칭송 전시 'The Glorious Life'가 15일까지 대구 남구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와 을갤러리에서 열린다. 2014년 대구미술관이 기획한 왕칭송·정연두 2인전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왕칭송의 개인전이다.

이번 왕칭송 개인전은 대형 작품의 느낌을 관람객들에게 온전히 전하고자, 아트스페이스 루모스가 인근 현대미술 전문 전시공간 을갤러리와 협업해 전시장을 마련했다.

왕칭송은 설치미술과 행위예술을 접목해, 중국 현대 사진예술계에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스로의 작업을 '사회적 다큐멘터리'라고 부른,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독특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왕칭송은 중국의 사회현상,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급격한 경제 개방이 이뤄지고 세계화와 도시화의 급물살을 탄 소비문화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중국인들이 겪게 된 혼란에 주목한다. 날카로운 식견과 직설적인 화법을 다양한 연출과 거대한 스케일을 통해 담아내며 당대의 중국이 겪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현실을 초현실적인 사진으로 만들어냈다.

전시 제목인 'The Glorious Life'는 그가 1997~2018년 진행한 사진작업을 통틀어 지칭한다. 한글로 번역하면 '생활 예찬'인데, 화면 속 이야기들은 오히려 자신이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대차게 비꼬는 느낌이다.

그의 작품 중 'Follow You'는 중국인들이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로 여기는 교육에 대한 자기모순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공적인 대학입시를 위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과도한 교육열에 대해 비판하는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Follow' 연작은 과도한 중국 대학입시, 한 번 보고 버리는 책, 공부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 지식 등이 소재다.

1960년대 시골에서 태어나 노동자로 살다 20대 후반 미술대학을 졸업한 왕칭송은 본래 회화 작업에 몰두했으나 1990년대 후반 사진으로 전향했다. 중국이 경제 개방 이후 겪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회화로는 포착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자신의 모습을 디지털로 합성해 작업한 왕칭송의 초기 디지털 포토 몽타주 사진은 1990년대 전통 다큐멘터리 사진에 머물러 있던 중국 사진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중국을 대표하는 사진가로 성장했다.

전시를 기획한 석재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대표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년간 그가 심혈을 쏟은 사진과 영상 작업들, 그 중에서도 그의 사진적 맥락을 최대한 밀도 있게 읽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했다"며 "황홀사회가 지닌 가치의 혼돈을 냉소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리고 비판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구현한 그의 작품들은 중국 현대사진의 개념을 새로운 접근과 문화적인 의미로 풍성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심사정(1707-1769) '화조도'

흑과 백으로 그린 화려한 모란꽃
수묵의 채색화…아이러니한 감흥



1767년(61세), 종이에 먹, 136.4×58.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심사정의 '화조도'는 채색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장르의 관례와 동떨어진 수묵화이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아니라 들판 언덕이 이 그림의 배경으로 떠올려지는 점도 이색적이다. 쌍쌍이 나는 대신 홀로 앉아있는 새는 화려해야 할 화조화에 쓸쓸함을 더한다. 담채와 진채를 다 잘 다뤘고, 아름다운 채색 화조화도 즐겨 그린 심사정은 50대 이후 수묵으로 화조화를 많이 그렸다. 왜 먹만으로 화조화를 그렸을까?

수묵 화조화는 서울의 양반 중에서도 일류였던 가문이 할아버지 대에 역모사건으로 몰락해 역적의 손자라는 멍에를 지고 직업적인 화가처럼 그림을 그렸던 심사정이 개척한 색다른 분야다. 양반 출신이어서 필기구로 익숙한 지필묵을 더욱 잘 다룰 수 있었고, 오랫동안 감상화의 세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수묵이라는 재료는 양반인 화가라는 그의 처지에 잘 맞는 특화된 분야였을 것이다.

화면 왼쪽에 목련을 높이 뻗어 올리며 내려다보는 새 한 마리를 가지에 앉혔고, 그 아래 꽃봉오리 하나와 만개한 모란 두 송이를 그렸으며, 바닥은 바위로 중심을 잡고 야생 난초와 민들레 등으로 안정감을 줬다. 화면의 중심은 모란과 바위다. 꽃이 크고 꽃잎이 풍성한 모란은 부귀를, 석수만년(石壽萬年)의 바위는 장수를 상징한다.

모란꽃과 잎사귀의 발묵 표현이 압권이다. 먹의 우아한 농담만으로 꽃잎의 보드라운 감촉이 느껴질 듯하고 짙은 먹으로 점처럼 그어 놓은 꽃술은 입체감을 준다. 잎사귀 형태와 매끄러운 질감 또한 몇 가닥 잎맥으로 더욱 생생하다.

먹과 물과 붓이 종이 위에서 대가의 손과 만났을 때만 가능한 수묵의 오묘함이다. 한국회화사에서 수묵화를 잘 그린 화가는 많지만 심사정은 먹을 채색처럼 사용한 드문 화가다. 수묵을 수묵으로 쓰는 것과 수묵을 채색처럼 활용하는 것은 다르다. 발묵 효과와 농담 대비만으로 모란꽃의 풍려함을 손색없이 그려낸 심사정의 묵모란은 수묵의 화려함이라는 아이러니한 감흥을 준다.

수묵 모란도는 심사정 이후 간혹 그려졌지만 추사 김정희의 제자 소치 허련에 의해 19세기에 많이 그려져 허련의 묵모란은 '허모란'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묵모란도는 먹이라는 재료가 표상하는 감상화의 품위에 부귀의 상징인 모란을 결합시킨 그림이다. 고상한 아취와 부귀영화 둘 다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의 소망이다. 20세기에는 김은호의 백모란, 박생광의 흑모란이 동양화 수집가들의 목록에 들어있었다.

미술사 연구자

범어도서관 도서, 동네 서점서 빌리세요!

이달부터 '바로대출서비스'
고려서점·멘토문고서 가능

수성문화재단 범어도서관은 이달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협약해 이용자가 신청한 도서를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대출까지 2주 이상 소요됐던 기존 희망도서 서비스를 보완해 시간을 5일 이내로 단축시킨 게 장점이다.

신청은 범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안내 문자를 받은 뒤에는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다. 범어도서관이 지정한 지역서점은 고려서점(수성동 1가)과 멘토문고(범어동)다.

신중언 기자

담수회, 3년 만에 '윤리도덕선양대회' 개최

사단법인 담수회는 11일 대구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회원과 평생교육생, 내빈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윤리도덕선양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선 시조창 등 전통문화 전승활동 시범과 유학 3대 명문장으로 꼽히는 이밀의 진정표를 성독(誠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선 제20회 전국한시백일장 시상과 제1회 담수상 시상도 진행된다.

이어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의 '유학과 우리 생활'이란 주제의 특강도 준비됐다. 대회에선 선효행상 시상, 장학금 전달과 함께 황의동 박사의 '오늘의 한국사회와 유림의 역할'이란 주제 특강도 열린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대구은행 사외보 '향토와 문화' 26년

창립 55주년 기념 특집 전시회
친환경 소재 종이로 공간 구성
수성동 본점 로비서 무료 관람





DGB대구은행 수성동 본점 로비에서 창립 55주년 기념 사외보 '향토와 문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수성동 본점 로비에서 사외보 '향토와 문화' 특집 전시회를 연다.

1996년 창간한 DGB대구은행 사외보 '향토와 문화'는 대구경북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총망라해 연 4회 계간지로 발간돼왔다. 지난해 10월 말 100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6년간 발간된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대형 책 펼침 조형물 포토존뿐만 아니라 '향토와 문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 전시 기념영상 및 100호 발간 특집 기념영상 등이 마련됐다.

특히 100호 넘게 이어진 콘텐츠 중 일부를 뽑아 제작한 미디어 아트 영상도 눈여겨볼 만하다.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디지털로 구현된 '향토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기획 단계부터 DGB대구은행의 ESG 경영 행보와 발을 맞추고자,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기존에 전시 구조물 재료로 사용되던 아크릴, 철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공간을 구성해, '종이로 만든 책'을 기념하는 전시 의미를 되새겼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과월호와 100호 기념 특별호를 무료로 배포하고, 추후 발간될 책을 무료 배송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연정 기자

매일춘추

윤동주를 생각함

손진은 시인

달빛이 찍는 창살의 실루엣이 이마와 콧마루, 입술, 가슴에 여민 손등에까지 간질인다. 달빛이 솔가지에 쏟아져 바람인 양 솨– 소리가 날 듯한 기숙사, 옆에 누운 친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그는 사념에 잠긴다. 고향 처녀들의 영상도, 바다를 건너온 친구의 이해 못할 절교선언 편지도 떠오른다. 감상적인 그 친구에게도 필연코 가을은 온 것인가?

그는 어느새 정원에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귀뚜라미 울음에도 수줍어지는 코스모스 앞에 서서 닥터 빌링스의 동상처럼 슬퍼"진다. 민감한 옷깃은 달빛에도 서늘해지고, 선득선득한 이슬은 서러운 사내의 눈물처럼 느껴진다. 가을밤은 그의 몸뚱이를 옮겨 못 가에 세워준다.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이 있고 달이 있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스럽고 달이 미워진다.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해 죽어라 팔매질을 한다. 달은 산산히 부서진다. 허나 일렁이던 물이 잔잔해지자 다시 얼굴을 드러낸다. 하늘을 쳐다보니 놈은 하늘 위에서 자신을 빈정대는 게 아닌가. 그 때 그는, 저 물에 비친 허상을 없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신을 비웃는 저 달을 겨누자고 생각한다. 마침내 꼿꼿한 나뭇가지에 띠를 째서 줄을 매고 좀 단단한 갈대로 화살을 만들어 "무사의 마음으로 달을" 쏜다.

윤동주의 산문 '달을 쏘다'는 애초 연희전문 문과 1학년 1학기 8월말 무렵 정인섭 교수의 '문학개론' 기말고사 시간에 써서 제출한 것인데, 약간 고쳐서 그해 10월 '조선일보' 학생란에 투고, 다음해 1월 23일자에 실린 작품이다. 더 놀라운 것은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이 있고 달이 있다"라는 구절에서 못을 '우물'로 바꾸면서 1년 뒤 그의 대표시 중 한 편인 '자화상'을 낳았다는 것.

스물한 살의 영혼은 왜 자정 넘은 시간, 달밤의 산책길에서 달을 향해 살을 겨누었을까? 김유신이 습관에 따라 천관녀의 집으로 향하던 애마의 목을 치는 심정이었을까? 차라리 50대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참회록'에 나타나는 톨스토이의 심정의 일단으로 비견하고 싶다.(그가 몇 년 뒤 "만이십사 년 일 개월을/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는 '참회록'을 쓴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윤동주는 겨우 스물 하나.

이제나 그제나 대학 1학년이면 살가운 연애도, 감상도 치기도 부려 볼 나이. 그러나 그는 센티멘탈리즘을, 지금껏 대상이 자기에게로 이끄는 대로 살아온 삶을, 그 달밤의 한 복판에서, 송두리째 뽑아 내친 것이다. 가을이 원망스럽고 달이 미워진 것이 아니라, 기실 잘못 살아온 스물한 살 인생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38년을 기점으로 그는 동시 쓰기를 그만 둔다. 감상을 폐기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생활'에 대해 골몰하기 시작한다.

누구는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고 했지만, 청년 윤동주가 아직 우리들 가슴에 살아 있는 것은 아직도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어쩡쩡 살아가는 중년들에게 매서운 화살을 들이대기 때문일까. 적막강산의 가을은 그 심정도 모르고 깊어만 간다.



드라마 같은 인생, 지윤 씨의 두 어머니



KBS1 '인간극장' 오전 7시 50분

KBS 1TV '인간극장'이 10~14일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된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지윤 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지윤 씨는 연극 연출가이자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이다. 어느 날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딛고 선 땅이 흔들리는 듯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지윤 씨는 생모를 찾았고 이제 첫 만남을 앞두고 있다.

어릴 적부터 양부모님의 부족함 없는 사랑과 식구들과 닮았다는 말을 듣고 살았던 지윤 씨이기에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지윤 씨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 뿐이었다. 긴 수소문과 시행착오를 거쳐 해외에 거주하는 생모에게서 첫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던 친어머니는 지윤 씨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상처와 부딪쳐 보려 하는 지윤 씨,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기에 그 어떤 진실과도 마주하려는 여정에 동행해 보자.

이신혜 기자 tvbox@imaeil.com

cpbc FM 93.1 MHz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오늘의 강론 오전 6시 50분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985년 10월 10일
'왕과 나'의 명우 율 브리너 사망

삭발 머리에 넘치는 카리스마의 배우 율 브리너가 폐암으로 투병 중 65세로 사망했다. 어린 시절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매년 여름을 북한의 함경도에서 보내곤 했던 율 브리너는 청소년기에 가수, 서커스 곡예사, 유랑극단 배우로 활동하다 31세에 뮤지컬 '왕과 나'의 주연을 맡아 크게 유명해졌다. 또 동명의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도 받았다. 그 밖에 '십계' '아나스타샤' '황야의 7인' '대장 부리바' 등에도 출연했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 KBS 053)757-7321 • MBC 053)740-9500
• TBC 053)760-2000 • EBS1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5:00 강에서 본 세계2	5:00 최강1교시(재)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10 내고향 스페셜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1부	50 한국기행(재)
6: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25 모닝와이드 2부	6:10 세계테마기행(재)
7:50 인간극장	7:00 해 볼만한 아침 M&W	50 살맛나는 세상	7:10 TBC 굿모닝 뉴스	7:00 꼬마버스 타요
8:25 아침마당	9:00 일일연속극	8:50 물 건너온 아빠들 스페셜	40 모닝와이드 3부	15 출동! 슈퍼윙스(종합)
9:30 KBS 뉴스	〈내 눈에 콩깍지〉(재)	10:2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인간극장 스페셜	12:15 MBC 뉴스	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8:00 딩동댕 유치원 / 20 로보카 폴리
11:00 TV쇼 진품명품(재)	10:20 살림하는 남자들(재)	25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9:50 싱 포 골드(재)	35 그린조끼 구조대
12:00 KBS 뉴스 12	11:4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1:25 SBS 뉴스	50 띠띠뽀 띠띠뽀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35 금토드라마(천원짜리 변호사)(재)	9:0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2:45 당신이 혹하는 사이4(재)	20 빅 블루 / 35 타타와 쿠마
				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재)
				30 한국기행(재)
1: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10 개는 훌륭하다(재)	1:2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2:10 SBS 뉴스	50 최고의 요리비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40 월화드라마	3:05 금토드라마	20 미운 우리 새끼(재)	11:20 세계테마기행
2:00 KBS 뉴스 2	〈법대로 사랑하라〉(재)	〈금수저〉(재)	4:20 월화드라마	12:00 EBS 뉴스 12
10 전국체육대회	5:10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치얼업〉(재)	10 다문화 고부열전
4:00 생로병사의 비밀(재)				1:00 당신의 활력충전소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EBS 다큐프라임(재)
5:00 KBS 뉴스				2:45 바닷가 사람들(재)
10 동물의 왕국(재)				3: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스토리타임
				15 페파 피그 / 25 그린조끼 구조대(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6:00 6시 내고향	6:10 놓친 예능 따라잡기(재)	6:05 오일장의 기억	6:50 생방송 투데이	5:00 EBS 뉴스 /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7:00 KBS 뉴스 7	30 2TV 생생정보	7:05 일일드라마	7:50 SBS 8뉴스	30 미니특공대 애니멀트론(종합)
20 팔도밥상 스페셜	7:50 일일드라마	〈비밀의 집〉	8:30 TBC 8뉴스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40 우리말 겨루기	〈태풍의 신부〉	40 MBC 뉴스데스크		7:00 말괄량이 삐삐
8:30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	8: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한국의 둘레길
				50 바닷가 사람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00 KBS 뉴스 9	9:50 월화드라마	9:00 안싸우면 다행이야	9:00 생활의 달인	50 EBS 다큐프라임
10:00 가요무대	〈법대로 사랑하라〉	10:4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00 월화드라마	10: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55 더 라이브	11:00 개는 훌륭하다	12:20 스포츠 매거진	〈치얼업〉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30 KBS 뉴스라인	12:30 아이 러브 스포츠	1:0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11: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55 클래스 e (1)
50 100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재)	5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2:40 2022 D루키 페스타(재)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12:40 생활의 발견	1:15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지식채널e(1) / 35 지식채널e(2)
				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10:00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0:30 베이스볼 투나잇	11:30 2022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FR	11:30 2002 한일월드컵 하이라이트 HL	10:00 편강배 2022 시니어바둑리그
13:50 KBO리그 NC:KT	14:30 PBA 챔피언십 일발장타	14:00 더 리얼 라운드 : 골프에 반하다	13:00 2022 KBO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12:30 제27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7:30 2022 KBO리그 끝내기 퍼레이드	15:00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2-2023	17:00 플레이 골프! 달인과 친구들	17:30 리우 2016 메달리스트	14:00 제5회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19:00 야구의 참견 시즌2	18:00 2022 KBO리그 주간 베스트	19:30 2022 K-culture 연예인골프대회	20:30 SBS프로복싱 KO 스페셜	19:00 제6회 해성 여자기성전
20:00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22:00 2022 현대 N 페스티벌	21:00 고덕호의 아홉시 티오프	22:30 21-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22:00 제23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24:00 KBO리그 주간베스트	24:00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기념 친선 축구	24:00 2022 K-culture 연예인골프대회	23:30 21-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24:00 제23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영화·경제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한국경제 TV
10:50 인질	11:45 방구석 1열	11:30 우주전쟁	12:30 빅퀘스천 김은혜 교수	10:00 증시 투데이
13:00 스텔라	13:00 리코리쉬피자	13:50 NCIS:LA 6	14:00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위원회	13:00 K-스탁 라이브
15:00 보이스	15:40 알파:위대한 여정	15:45 블랙호크다운	16:00 이슈&직설	16:00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18:50 성난황소	17:30 인피니스	18:30 13구역	19: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9:00 버추얼토크 가상자산
21:1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19:35 CSI: 10	20:05 레벤느망	21:00 필살기 고수외전	20:00 대박천국
23:30 장미맨션	22:35 디엠파이어:법의 제국	22:00 말임씨를 부탁해	23:30 만렙 박주식	22:30 한경 글로벌 마켓

드라마·오락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12:00 1박 2일 시즌4	10:50 금수저	10:10 천원짜리 변호사	12:10 작은 아씨들	10:40 전격의 할매
14:50 신상출시 편스토랑	14:00 전지적 참견 시점	13:10 천원짜리 변호사	15:20 유 퀴즈 온 더 블록	12:00 도시어부 3
17:30 차트를 달리는 남자	17:00 나 혼자 산다	17:00 나는 솔로	17:30 백패커	15:00 고생 끝에 밥이 온다
18:30 삼남매가 용감하게	20:00 금수저	18:30 미운 우리 새끼	19:30 줄 서는 식당	18:40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1:30 이십세기힛-드쏭	23:10 나 혼자 산다	20:30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20:40 우리들의 차차차	21:10 지구에 무슨 129?
23:30 법대로 사랑하라	24:30 투깝스	23:10 미운 우리 새끼	22:30 멘탈코치 제갈길	23:20 진격의 할매

종편·보도

MBN	TV조선	JTBC	채널A	YTN
11:10 나는 자연인이다	10:30 K원전, 사막에 꿈을 짓다	10:00 아는 형님	12:00 뉴스A LIVE	11:50 뉴스N이슈
14:00 속풀이쇼 동치미	12:00 여행의 맛	13:10 한블리	14:30 서민 갑부	13:50 더뉴스
17:00 우리들의 남진	15:20 국가가 부른다	17:00 정치부 회의	17:20 뉴스Top10	15:50 뉴스와이드
19:00 MBN 뉴스7	19:00 건강한 집	18:30 사건반장	19:00 뉴스A	17:50 뉴스와이드
21:10 판도라	21:00 TV CHOSUN 뉴스9	20:50 톡파원 25시	21:10 천하제일장사	21:40 뉴스나이트
22:40 미스터리 듀엣	24:30 건강한 참견	22:30 최강야구	22:40 배우는 캠핑짱	23:50 자정뉴스

어린이·다큐

투니버스	JEI재능TV	챔프	YTN 사이언스	내셔널지오그래픽
10:00 수퍼배드2	11:00 따라락따라락 뚝딱맨	11:30 안녕 자두야2	10:00 수다학	11:40 The Yard
13:00 흔한남매의 안흔한일기4	13:00 극장판 바다탐험대 옥토넛	13:00 안녕 자두야2	13:00 사이언스 포럼	14:25 Leave No Trace
15:20 쌍쌍초월	17:00 메카드볼 NEW에피소드	16:00 마루코는 아홉살2	15:00 다큐S프라임	17:10 Gordon Ramsay
18:00 브레드이발소3	19:00 엉덩이 탐정	19:00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18:00 테마기행 세기의 절경	19:00 Car SOS 10
21:00 명탐정코난 극장판	21:00 코봉월드TV 웃긴 상황극	21:00 극장판 원피스	21:00 사이언스 스페셜	21:00 Origins
24:00 이누야사	23:00 아이돌타임 프리파라	23:30 라바 인 뉴욕	24:00 문화유산 세계여행	23:00 Primal Survivor

종교·해외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CNN Int'l
11:00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10:00 BTN뉴스	11:00 터너라운드 텐트	11:00 BBC World News	10:00 Fareed Zakaria GPS
14:00 가톨릭 둘레특강	13:00 오대산 삼대화상	13:20 말씀 황인철 목사(훌러톤장로교회)	14:30 World Business Report	12:00 Connecting Africa
16:00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15:00 진푸티 종사의 보리심	15:40 부모에게	16:30 Talking Business	15:00 CNN Newsroom
19:00 바티칸 리포트	18:00 저녁예불	18:10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18:00 BBC News	18:00 Early Start
21:00 평화를 위한 기도	19:30 나랏말소리, 글자취를 따라가다	21:00 소망교회 주일예배	20:00 Live With Lucy Hockings	21:30 World Sport
23:30 바티칸 리포트	22:30 2022 화엄음악제	23:0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	23:00 Impact with Yalda Hakim	23:00 Connect the World

교육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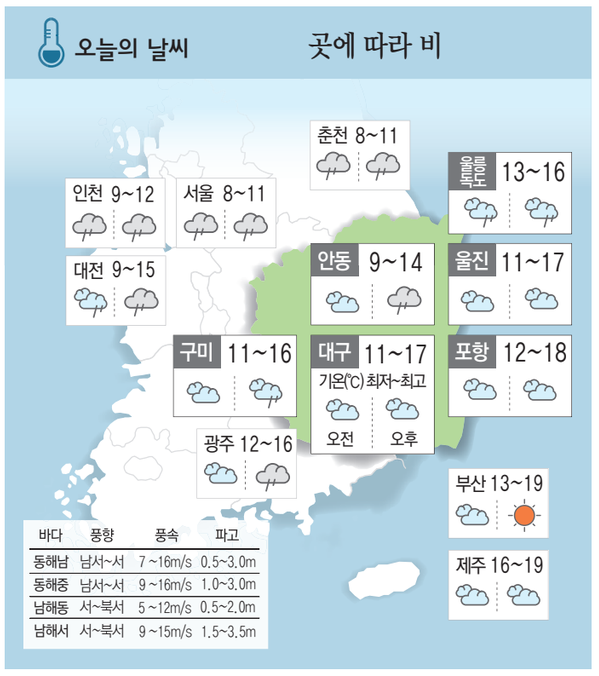
EBS플러스1		EBS2	
5:00 [2023 수능완성] 베트남어 I	10:00 [2023 약점공략] 수학 I	6:00 EBSe 생활영어(재)	10:00 최고다! 호기심딱지
50 [2023 수능완성] 러시아어 I	50 [2023 수능완성] 세계사	30 EBSe 생활영어	30 한글용사 아이야(종합)
6:40 [2023 수능완성] 중국어 I	11:40 [2023 수능완성] 수학+미적분	7:00 왕초보 영어(재)	11:00 히어로 써클(종합)
7:30 [2023 수능완성] 독일어 I	12:30 [2023 FINAL 실전모의고사] 물리학 I	30 왕초보 영어	30 뭐든지 뮤직박스
8:20 [2023 수능완성] 영어	13:20 [2023 수능완성] 물리학 II	8:00 Seasame street	12:0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9:10 [2023 수능완성] 영어실전모의고사	14:10 [2023 수능완성] 생명과학 II	9:00 마법버스 타요(종합)	30 도라도라 영어나라
	15:00 [2023 FINAL 실전모의고사] 생명과학 I	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05 도전! 나도 과학자
			30 예술아 놀자
	15:50 기본[2023 수능특강] 경제		14:00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4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기출]수학		30 시몽
	17:3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기출]미적분		15:00 야옹! 클래식
	18:20 [2023 수능완성] 공업일반		45 세미와 매직큐브
	19:10 [2023 수능완성] 성공적인 직업생활		16:00 스쿨랜드 - 과학
	20:00 [2023 수능완성] 상업경제		17:20 즐거운 수학 EBS MATH
	50 [2023 수능완성] 경제		18: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30 도라도라 영어나라
	21:40 클래스 e (1)		19:05 도전! 나도 과학자
	22:00 [2023 만점마무리] 한국사		30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23:2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20:00 한국의 둘레길
	24:10 [2023 약점공략] 물리학 I		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1)
	1:00 [2023 약점공략] 생명과학 I		21:00 바닷가 사람들
	50 지식채널e(1)		50 지식채널e(1)
	2:00 EBS 비즈니스 리뷰		2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3:20 EBS 비즈니스 리뷰

방송대학 OUN
9:00 미디어비평
11:00 상담자가 건네는 말
13:00 일본어 기초 2
15:00 지역사회영양학
19:00 뉴노멀
22:00 표본조사론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출발! 대구대행진 오전 7시 每日新聞 뉴스 오후 4시

오늘의 날씨

곳에 따라 비



■ 5일간 예보

지역 \ 날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해 뜸	06:28
해 짐	17:57
달 뜸	18:18
달 짐	06:30

지역	만조	간조
포항	04:36	10:15
	16:30	23:17
부산	08:31	02:09
	20:48	14:20

·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 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 1577-662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시장앞) 250-8114
  www.dsm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1688-0077
  www.dcmc.co.kr
- 경북대학교병원 ——— 1666-0114
  www.knuh.kr
- 영남대학교병원 ——— 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 파티마병원 ——— 1688-7770
  fatima.or.kr 동대구역 옆
- 곽병원 ——— 252-2401
  kwakh.co.kr 서성네거리
- 구병원 ———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4번출구
- 천주성삼병원 ———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 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 대구의료원 ——— 560-7575
  www.daegumc.c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320-2500
  www.tcmcch.co.kr 대구은행칠곡지점 건너
- 경산중앙병원 ——— 715-0119,0129
  www.gsjoongang.com
- 드림종합병원 ——— 640-8575
  www.dreamh.co.kr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출구

병 원
- 수성메트로병원 ——— 743-7777
  남부정류장네거리 지하철2호선 만촌역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국대→영천, 고경 방향
- 상주연세실버타운 ——— 054-533-1600
  www.syst.or.kr
- 연세한방병원 ——— 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 ——— 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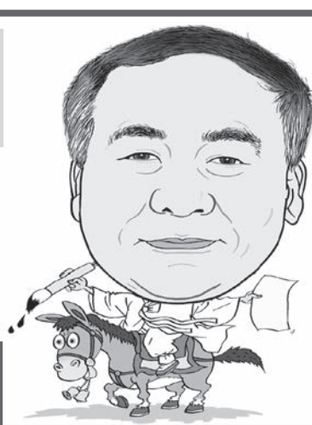
■ 심야약국(저녁10시~새벽6시) 768-3679 수성구 황금2동 757-3 대구시약사회관 별관1층

■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대하약국 ——— 254-8164
- 〈동구〉팜프라자약국 ——— 607-2733
- 〈서구〉경명약국 ——— 355-7255
- 〈북구〉형우당약국 ——— 358-9696
- 〈북구/칠곡〉강북약국 ——— 323-8736
- 〈달서구〉삼일약국 ——— 568-3375
- 〈달서구〉메디칼중앙약국 ——— 586-7900
- 〈달성군〉중앙약국 ——— 615-0007

■ 365 자정약국
- 〈중구〉복음약국 ——— 252-1325
- 〈중구〉한성약국 ——— 425-5575

당직 변호사 (10일)권대희 (11일)이상훈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작명원제 큰이름
053-241-3456
큰이름 ▼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3년 만에 열린 '대가야영화음악제' 가을밤 감동 선사

每日新聞·고령군 공동 주최

가수 최병윤·강태풍 등 출연 군민들 1천여명 공연 즐겨



'에스피아르떼'가 시네마 천국, 여인의 향기, 미션임파서블 등 세계적인 명화들의 OST를 연주하고 있다.

3년 만에 야외 무대로 돌아온 '2022 대가야영화음악제'가 8일 오후 7시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매일신문사와 고령군이 주최한 영화음악제는 3년 만에 다시 열린 야외 공연인 만큼 완성도 높은 공연과 뜨거운 열기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은 감동과 감흥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와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밤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1천여 명의 관람객이 밤이 늦도록 공연을 함께 즐겼다.

먼저 가얏고 사랑으로 고령을 널리 알린 고령 출신 가수 최병윤이 신명나는 트로트로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최병윤은 영화 '형'의 OST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며 감동적인 첫 무대를 선사했다.

이어 '에스피아르떼'가 '시네마 천국' '여인의 향기' '미션임파서블' 등 세계적인 명화들의 OST를 연주하며 관객들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고령의 아들이라 불리는 트로트 가수 '강태풍'(구 예준이)과 퓨전 국악 밴드 '나릿', 쌍둥이 트로트 가수 '윙크'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트로트와 국악, 영화 OST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순서로 장구의 신 박서진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노래와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영화음악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하는 높은 수준의 공연문화를 나타내며 성공적인 지역 문화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채수 기자 cslee@imaeil.com



한국노화예방연구원 '바른 자세 걷기 교육'

한국노화예방연구원(이창수 원장)은 7일 예원재가노인돌봄센터(한승엽 센터장)가 진행한 제3회 수성못 걷기 행사에서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인지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중 '스모비' 운동기구를 활용한 바른 자세 걷기 교육을 진행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복지단체 초청 체육대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은 6일 신천사업소 내 체육시설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 재활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복지단체를 초청하여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도로공사서비스 봉사단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행복나눔봉사단(대구경북단장 권용진)은 헌혈의 날(매월 13일)을 기념해 지난달 13일부터 4주간 헌혈 캠페인 주간을 지정, 센터 및 영업소 57곳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6일에는 25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증서를 기부했다.



영천 은해사 창건 1213주년 개산대재 법요식

원희룡 장관 등 500여명 참석

경북 영천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는 창건 1천213주년을 맞아 8, 9일 양일간 개산대재 법요식과 함께 산사의 가을밤을 수놓는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영천 시민 산사 노래자랑, 도시민이 함께하는 은빛음악회 등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전통 한지등(燈) 50여 점과 1천여 개의 LED 조명이 선사 전각과 숲을 밝힌 가운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9일 오전 열린 개산대재 법요식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해 조실 법타 대종사, 회주 돈명 스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만희·윤두현 국회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등 정·관계 및 종교계 인사와 불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건 1천213주년을 축하하며 화합과 희망을 기원했다.

원희룡 장관은 "은해사에서 받은 좋은 기운을 토대로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만희 의원이 도움을 요청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선대 조사 스님들의 혜명을 받들어 영천과 경산 시민, 경북 도민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천년고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영남새마을공동체-한울타리 태풍 이재민 집수리

건축기술자 20여명 봉사 참여

태풍 '힌남노'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은 포항의 피해지역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태풍 피해가 극심했던 포항시 용흥동, 해도동, 구룡포읍, 동해면 등 피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복구를 위해 영남새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현희)과 사회적협동조합 한울타리(이사장 정귀자)가 주거환경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건축기술자들로 구성된 두 조합의 조합원 20여 명은 침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50여 가구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알레르기 피부질환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장판과 벽지, 풀 등은 친환경 제품으로 구성했다.

집수리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이현희 봉사단장은 "집수리가 가능한 가구부터 젖었던 벽지와 장판을 전부 걷어내고 교체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봉사자들의 손길로 말끔하게 만들어지는 보금자리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해현장에서 두 조합의 봉사자들이 온종일 작업한 끝에 이재민들의 방은 깨끗하게 변신했다.

포항 연일읍의 장모 할머니는 "수해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고쳐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채근 기자 mincho@imaeil.com



성주군 공무원 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6~7일 가야산생태탐방원에서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주군 공무원 홍보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군위군 희망복지지원단, 군민체육대회서 홍보 부스 운영

군위군(군수 김진열) 희망복지지원단은 8일 열린 '제46회 군민체육대회'에 홍보 부스를 설치,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나도 대구의 독립운동가' 청소년아카데미 2기 개막

1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견학 등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상임대표 우대현)가 주최하고 (사)청소년꿈랩(대표 이승희)이 주관하여 올해 대구지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나도 대구의 독립운동가' 제2기 청소년아카데미가 지난 8일부터 열려 오는 15일로 예정된 천안의 독립기념관 견학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소년아카데미는 대구지역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학생들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친 강의를 통해 대구와 국내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해 공부했다.

특히 이날 명성황후 시해 127주년을 맞아 학생들은 1895년 을미사변 때 일제 자객이 궁정에 불법 침입하여 명성황후 시해 때 사용한 칼 히젠도(肥前刀)에 얽힌 사연 등도 알아봤다.

이날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장(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과 정인열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대구에서 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이날 대구 출신 또는 대구와 연고 있는 인물들의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 만주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독립운동을 도운 알려지지 않은 활동 등 비화 사례도 소개됐다.

이화섭 기자



다함께 배우고 즐기는 '달서평생학습축제' 성황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8일 월광수변공원에서 '배움을 잇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2022 달서평생학습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평생학습동아리, 희망학습마을, 동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활동을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의미를 담아 3년여 만에 대면 축제로 준비했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달서어린이 그림대회, 평생학습성과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등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1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식전 공연으로 퓨전국악밴드 '아리안', 특별공연으로 시니어 패션쇼 '계명대 시민교육원 시니어모델아카데미', 축하공연으로 성악 앙상블 '힐링우체통'과 현대무용 '팀 MUTO'의 컬래버레이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행사가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2 달서평생학습축제를 통해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평생학습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모든 구민이 배움을 다시 잇고,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순천향대 구미병원-희망디딤돌 경북센터 협약

순천향대 구미병원과 희망디딤돌 경북센터는 6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경로당 '우수 프로그램' 수성1가 제2경로당 대상

(사)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광연)는 7일 대구 8개 지회 1천5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상은 수성1가 제2경로당의 치매예방디지털뇌트레이닝 연극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한글 아름다움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 내방가사…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권숙희 내방가사 작가

조선시대 궁녀들이 쓰던 '궁체'
명맥 잇는 4음보 율문 '가사문학'
한글학자들 우수성 증거로 꼽아

80대 고령 작가 속 최연소로
"옛 가사가 '여인의 한풀이'라면
이젠 현실 속 우리 이야기 할 때"

10월 9일은 576번째 한글날이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글 또한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한글이 한때는 무시받고 천대받던 글자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쓰지 못하도록 탄압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그 우수성을 자랑하는 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는 게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다. 그 증거로 조선시대 궁녀들이 쓰던 한글 서체 궁체와 4음보의 율문으로 이루어진 가사문학을 들기도 한다.

내방가사 작가인 권숙희 씨는 영남 지방 사대부 집안 여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된 '내방가사'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권 작가는 지난 2014년부터 내방가사를 쓰고 연구하고 낭송하며 사람들에게 내방가사를 알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작가의 길을 걷기 전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던 권 작가에게 내방가사는 한지에 먹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다가왔다.

"아마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30년 지기 고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화전놀이를 하다가 그날의 감상을 SNS에 써서 공유했어요. 다 쓰고 보니 내용이 가사 '화전가'처럼 나오더라고요. 친구들도 읽어보니 좋다고 하면서 '아예 제대로 한 번 글쓰기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친구들의 추천과 권유로 2014년 전국 내방가사 창작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장려상을 받았다. 그때 상을 받은 작품이 '세월호 탄식가'이다. 이후 권 작가는 본격적으로 영남 지방의 내방가사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내방가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기도 했다.


내방가사 작가인 권숙희 씨가 자신이 풀이한 정인지서(훈민정음 혜례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를 가사로 풀이한 두루마리 작품을 펼쳐 보이고 있다.

권 작가가 말하는 내방가사의 매력은 네 글자씩 짝을 지어 만들어내는 4·4조 운율 속에 당시 여성들의 삶의 모습과 전하고자 하는 교훈 등이 모두 담겨 있고, 그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한훤당 김굉필 선생 집안에서 전해오는 가사였던 '만수가'를 풀이한 적이 있어요. 경주 양동마을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10년 만에 친정에 갔다 오는 과정을 쓴 내방가사인데요. 자식이 없어서 시름하는 모습부터 친정에서 편히 쉬다가 시댁으로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까지 당시의 다양한 풍경이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많다 보니 발굴된 가사를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한글의 아름다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5~8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렸던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특별전에 작품을 전시한 사람들 중 최연소 작가이기도 한 권 작가는 점점 내방가사를 알고 보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아쉽다고 말한다. 내방가사 작가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많다 보니 명맥 유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권 작가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방가사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 내방가사를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권 작가는 옛 내방가사 발굴만큼 현대적 가사문학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제가 쓰고 있는 가사 작품들은 소위 '여인의 한풀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내방가사와는 다르게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19처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이제는 가사 형식을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가사 작품이 문학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도 방법이라 보고 이에 대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글 사진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외국어 간판 한글로!' 대구 학교 현장 한글사랑 교육

대구시교육청 10월 한 달 동안 진행
제576돌 한글날 맞아 1183명 참여


대구 효성여고 학생들이 단체복을 맞춰 입고 '한글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초·중·고 학생과 교사 1천183명을 대상으로 한글사랑 실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한글사랑과 관련된 수업, 동아리 활동, 학급활동에 참여할 학급 및 동아리를 모집했는데, 공고 후 3시간 만에 목표한 50팀(1천 명)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번 한글사랑 실천 교육은 수업, 동아리 활동, 학급활동 및 각종 학교 행사에서 한글날의 의미와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1팀 735명의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한글날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계기교육, 세종대왕께 편지쓰기, 외국어 및 외래어로 된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바꾸기 등 체험 중심 활동을 전개했다.

한글을 활용해 나만의 병풍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대구 유가초 1학년 이룡재 학생은 "한글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소중한 한글로 예쁜 말만 쓰겠다"고 했다.

중학교는 14팀 318명이 참여했다. 성화중학교는 지난 7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한글날 기념 백일장을 시작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우리말 퀴즈, 한글 자모를 활용한 예쁜 엽서 그리기, 나만의 국어사전 뜻풀이 등 활동을 수업 시간에 진행했다.

성화중 1학년 변규린 학생은 "예쁜 엽서 그리기 활동에 참여하며 '시나브로'라는 순우리말을 알게 됐다"며 "예쁜 우리말이 참 많은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썼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고 했다.

5팀 125명이 참여한 고등학교에선 정치와 법 관련 용어 한글로 바꿔 보기, 모의재판 진행과 사회문제 탐구 후 한글로 N행시 써보기, 토박이말을 활용한 한글 시조 짓기 등과 같이 교과 수업과 연계한 활동을 했다.

아울러 효성여고는 교사와 학생들이 단체복을 맞춰 입고 '한글사랑 캠페인'을 진행해 한글날의 의미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효성여고 2학년 이시은 학생은 "한글날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친구들과 훈민정음을 공부했다"며 "이를 통해 글로만 알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실용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활동들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 동아리 활동 속에서 한글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게 이뤄졌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수성구립 고산도서관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섬 '독도'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고산도서관 제공

고산도서관 독도의 날 기념 '인문학교실' 운영

지하 1층 독도 생물 표본 전시
25일 전충진 전 독도기자 특강

(재)수성문화재단(김대권 이사장) 대구 수성구립 고산도서관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섬 '독도'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는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독도&안용복연구소와 협력하여 2회 강연과 1회의 탐방으로 구성된 '독도인문학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4일은 김병우 대구한의대 교수의 '한국과 일본, 독도와 안용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으며, 11일 오후 7시에는 이소리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원의 '독도와 강치'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14일에는 강연 참석자에 한해 부산일원으로 독도 및 안용복 관련 유적지 탐방을 통해 현장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도서관 지하 1층 전시실에는 이달부터 두 달여간 '독도, 이야기를 품다'라는 주제로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해조류, 육상식물 등) 표본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생물 퀴즈, 포토존 등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해 18일 오후 7시 황의욱 경북대 교수의 '독도의 생물다양성', 25일 오후 7시에는 전충진 전 매일신문 독도 상주 기자의 '독도에 살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열린다.

황의욱 교수의 강연을 통해 독도의 다양한 생물에 관한 정보와, 전충진 전 기자가 1년간 독도에 상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독도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공은혜 기자 kong@imaeil.com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음력 9월 15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생각보다 행동이 빨라 즉흥적으로 행동해서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8년생 그동안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졌네요. ▶60년생 24시간 일해도 내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누굴 위해 나는 일하는가 생각해 봐요. ▶72년생 가족보다 회사를 위해,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요. ▶84년생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컨설팅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 바쁜 날이네요.


소
▶37년생 혈관 쪽, 순환기 쪽이 아프면 병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요. ▶49년생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커요. 현실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요. ▶61년생 상장, 감사패, 문서 취득 등 공들이고 노력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네요. ▶73년생 힘들고 나서 도약하는 하루,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85년생 오늘은 친구, 동료,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고 케어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키워요.


범
▶38년생 선택할 일이 생겨요. 자신의 식견을 믿고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50년생 일적으로 이동이나 변동 사항이 생겨요.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순리대로 따라요. ▶62년생 주변의 추대로 미흡한 게 많지만 중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 있어요. ▶74년생 여기 저기에서 나를 찾아 바쁘게 움직이네요. 내 역할이 커지고 쓰임이 많아져요. ▶86년생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듯, 내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수 있겠군요.


토끼
▶39년생 갑자기 들리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요. ▶51년생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여진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하루랍니다. ▶63년생 나에게 우호적이고 편한 곳을 찾아 다니고 있어요.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해요. ▶75년생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유연해지고 편안해졌네요. 모두 당신 덕분이랍니다. ▶87년생 성급하게 결정한 일에는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조금만 더 여유있게 행동해요.


용
▶40년생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이네요. 말로만 끝나지 않게 조금 더 다듬어야 해요. ▶52년생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네요. 누군가에게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네요. ▶64년생 인복을 타고난 날입니다. 내가 뭐라도 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네요. ▶76년생 혼자 보다는 둘이 낫겠죠. 같이 하면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빠르게 나온답니다. ▶88년생 내가 가진 실력과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요. 당신은 충분히 조건을 갖췄어요.


뱀
▶41년생 한 것에 비해 결과가 과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조심히 활동하세요. ▶53년생 나를 위해 노력해주고 힘써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 될 거예요. ▶65년생 뭐든지 속전속결, 치고 빠지기를 잘 하네요. 아무도 피해 보지 않게 해야 해요. ▶77년생 일만 많고 쉬지도 못하고 있네요. 일은 많이 했지만 결과가 적어서 속상해요. ▶89년생 시험 합격, 임신, 승진 등 좋은 소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이 생겨요.


말
▶42년생 당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요. 어디를 가나 인기 폭발해요. ▶54년생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할 일이 많아요. 불규칙한 생활이 되지 않게 신경써요. ▶66년생 언쟁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여유로움을 찾아봐요. ▶78년생 다소 무리한 노동이나 일거리로 피로감이 생기네요. 방구석 휴식이 필요해요. ▶90년생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진행을 하려네요. 적당한 압박감이 필요할 때죠.


양
▶43년생 미미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결과물로 나타나요. 드디어 골칫거리가 해결되었네요. ▶55년생 다른 사람을 신경쓰는 건 에너지 낭비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편하게 지내봐요. ▶67년생 서로 귀감이 되면서 동반성장 중이에요. 경쟁자라 생각 말고 동반자로 여겨요. ▶79년생 동료나 친구로 인해 문제가 해결돼요. 힘들면 끙끙대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요. ▶91년생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아보네요. 승진, 임신, 합격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원숭이
▶44년생 마음과 몸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하루쯤은 계획이 없어도 괜찮으니 즐겨봐요.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생기고 막힘이 예상돼요. 오늘은 잠시 휴식을 가져요. ▶68년생 세상은 내 편, 나를 향해 움직이는 듯한 느낌. 단기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해요. ▶80년생 시작 부분이 조금의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지만 일단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92년생 아직은 실적도 없고 실속도 없지만 실력이 자산이니 자신을 믿고 도전해 봐요.


닭
▶45년생 어느 정도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57년생 묵묵히 내 일을 하니 뜻밖의 호재와 호인을 만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69년생 1단계에서 2단계로 나가는 전환점 단계네요. 자신의 선택에 믿음을 가져요. ▶81년생 과소비, 돌발 행동 같은 예전엔 하지 않던 행동과 결정이 주변을 놀라게 하네요. ▶93년생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결정하기로 해요. 결정이 성급해 보이네요.


개
▶46년생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겨서 답답합니다. ▶58년생 사람들과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봐요. ▶70년생 자신의 결정과 판단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요 ▶82년생 어디서든 튀는 당신, 자신감 있게 능력 발휘를 한다면 원하는 성과가 나올 거예요. ▶94년생 자신의 목표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


돼지
▶47년생 건강에 적신호네요.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명상 같은 정신적 활동에 집중하세요. ▶59년생 갑작스러운 문제로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세요. ▶71년생 새 역할, 새 임무가 생기는데 내 역량 밖이라 부담스럽네요. 잘 할 것이니 걱정 마세요. ▶83년생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봐요. ▶95년생 불편하고 힘들다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온다면 더 고생스러운 상황이 됨을 명심해요.

새로운 춤 축제 기대하며

기 고



채 명
무용평론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제8회 대구세계안무축제'(조직위원장 박현옥)가 대구예술발전소와 아양아트센터에서 각각 열렸다.

축제의 포문을 연 행사는 25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2022 세계안무축제 포럼'이었다. 그것은 8년 동안 지속해 온 '대구세계안무축제'를 내년부터 '국제현대무용축제'로 변환할 당위성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세계안무축제'의 정신이자 창의적인 대구 현대춤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 뿌리를 살펴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발제는 대구의 무용 관련 4개 대학(계명대·대경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에서 각각 한 명씩 맡았다. '대구 춤의 정신, 한국현대무용의 발상지'라는 주제에 맞춰 김민준, 박혜진, 박수열, 김미진 등 젊은 발제자들은 대구 춤의 정신과 향방, 지역 축제의 의미, 다양한 춤의 교류를 통한 확장성 등을 모색했다. 그들의 시야로 춤이 가야 할 길을 과제로 내놓고 나름의 해법을 찾아본 포럼은 완성도를 떠나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축제에 앞선 포럼은 축제의 목적성에 대한 진단의 장이기도 하고, 젊은 춤꾼들에게는 춤의 소통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27일 아양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 '파워풀 광장의 춤'은 단연 돋보였다. 축제의 흥취를 무대 밖으로 끌어내, 우리나라 전통 마당굿의 대동 화합 춤판까지 보여준 무대였다. 소통하는 즉흥 춤으로 '가을'을 표현하는 젊은 무용가들의 솜씨와 여러 장르의 춤들이 타악 팀 '원따나라'의 비트에 맞춰 춤의 고조를 조율하는 솜씨가 생생하게 눈앞에서 펼쳐졌고,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특히, 관객과 함께 완성한 마지막 대동의 춤판은 관객의 흥취를 한껏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같은 날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는 '해외안무가전'이 열렸다. 무대에 오른 이스라엘 솔댄스컴퍼니(Sol dance company)는 작품 '내 인생의 시간'(Time of My Life)을 통해 냉철하게 자신을 찾아가는 조용한 탐색의 춤을 선보였다.

29일 열린 '국내안무가전'에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춤을 고민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요즘 핫한 안무가로 꼽히는 권혁, 이준욱, 한창호, 김보라의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다만, 적은 예산으로 하루에 풀어낸 4팀의 공연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더라면, 관객에게 그 열기를 충분히 전달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새로운 무대를 계속 이어가며, 더 나은 축제를 위한 고심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주최 측의 고단한 봉사와 열의로만 축제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환경적인 여건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구시와 여러 기관의 춤에 대한 열린 인식과 지원이 보태져야 발전의 폭을 키울 수 있다.

춤꾼이나 안무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김상규무용상'과 '정막예술상'이 재원 부족으로 그에 걸맞은 시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축제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합당한 시상은 축제의 열기를 더욱 돋우게 될 것으로 단언한다.

내년부터는 대구세계안무축제가 대구에서 시작된 현대무용의 원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대구국제현대무용축제'로 이름을 바꾼다. 8년 동안 역량을 다져 온 세계안무축제가 안무를 너머 대구가 시발이 된 현대춤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던댄스로 확장할 2023년이 기대된다.

외교 이은 안보의 정쟁화는 안 된다

노동일 칼럼



경희대 교수

한·미·일 독도 인근서 군사훈련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이재명 대표

친일 프레임 씌워 정치적 이용은 자해
'신중' 요구 대신 '친일' 비난 역풍 자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는 연설을 했다.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계속 요구한다는 그간의 강경한 연설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4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협의하자는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당장 해법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관련된 한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찾자는 제안을 한 사실은 긍정적 신호다.

6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 전개는 '외교 참사' 프레임이 사실과 다른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야당이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던 기시다 총리와의 회동이 있었기에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이 나올 수 있었다. 한미 정상 간 '48초' 만남도 그렇다. 두 정상이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이 바이든 친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나는 지난번 칼럼에서 야당과 일각의 비난이 '외교 참사'가 아닌 '정치적 참사'라 지적한 바 있다. 누구를 두둔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외교는 끈질긴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된 후에야 조그만 열매라도 수확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식상하지만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정치인들의 말이 단순히 입에 발린 수사여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기도 했다. 대통령이 아직 해외 순방 중에 있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며 흔들어 댄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런 헛된 소동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는 사실이다. 외교를 망치기 위해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검은 모자와 베일은 미망인이나 왕족들만 쓰는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전하며 공중파 방송에서 이죽거렸던 이른바 방송인, 조문록을 왼쪽에 쓰는 것은 의전의 기본을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던 전직 의전비서관 등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미국) 국회'라는 자막으로 사실을 왜곡한 방송사도 마찬가지. '비속어 논란'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끈질기게 요구하던 사람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열리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왜 하필 독도 인근에서 하느냐"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당장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3국 국방부 장관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2017년 4월에도 제주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훈련이 열렸다는 반론이 나온다.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인천항에 입항한 사실도 있다. 훈련 장소는 독도에서 185㎞, 일본 본토에서 120㎞로 오히려 일본 근해에 가까운 해역이었다. 북한 잠수함에 대비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것과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느냐 따진 것은 견강부회일 뿐이다.

애증이 얽힌 한일 관계는 우리가 익히 경험한 대로 일도양단식 해법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자해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가 한일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일본과의 군사훈련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면 충분히 경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친일' 비난부터 하고 들어간 것은 역풍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에 이어 안보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이웃은 지리적 숙명이지만, 동맹은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이다."(케네디) "갈등이 있더라도 동맹과 함께 싸우는 것이 동맹 없이 홀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처칠) 이 대표가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 정치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겨야 할 경구이다.

김경수의 每日 희평

지구 역사 종말의 두려움



관풍루 觀風樓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지난주 걸린 가운데, 퇴임 후 약 5개월 만에서야 뒤늦게 게시된 배경에 관심. 문 전 대통령 비호에 나선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 표명(?).

○…5천700억 원 공사비 들어가는 10.7㎞ 길이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일명 '문재인 도로' 건설 계획이 논란. 아무리 남북협력의 상징이라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마당에….

○…미국, 중국을 겨냥해 고강도의 반도체 장비·칩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관련 기업, 긴밀한 조율 속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는 '유비무환' 자세 필요.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교영 신문국장 이춘수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경북본사 054)855-1700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난방기, 온풍기, 제습기, 이동식에어컨 전품목 도매가격 판매
초절전 인버터 기술의 원조 Carrier 캐리어에어컨
올 겨울에도 전기료 걱정없는
"캐리어 에코그린 인버터 냉난방기"가 정답입니다.
냉난방기 라인업
에어로 18단 에어컨 / 제트 18단 에어컨
자연기습'명품' 공기청정기 / '미니' 공기청정기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 시스템
10월 고객 사은 할인판매 방문상담시 특별 할인가 적용
초절전 인버터 기술의 원조 캐리어에어컨 대구 보성총판
창고형 매장 : 대구 서구 이현동 42-578
상담전화 053-566-8016

허생이 은 50만 냥을 바다에 버린 까닭은

每日 칼럼



김해용
논설주간

비록 가공의 인물이긴 하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투자 귀재를 꼽자면 허생(許生)일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쓴 풍자소설 '허생전'의 주인공이다. 원래 허생은 책벌레였는데 "돈 벌어 오라"는 아내의 타박을 듣고는 한양 갑부에게서 1만 냥을 빌려 재테크에 나선다.

안성에서 과일을 싹쓸이해 10배 폭리를 취한 허생은 제주도로 건너가 말총을 다 사들여 또 10배를 번다. 두 차례 매점매석으로 원금의 100배를 번 셈이다. 기쁘냐는 시종의 말에 허생은 오히려 탄식을 한다. 고작 1만 냥만으로 흔들 수 있는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허생은 기근이 발생한 일본을 도와주고는 은(銀) 100만 냥을 받는다. 조선 최대 은광의 연간 생산량이 500냥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물량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허생은 은 50만 냥을 바다에 버린다. 막대한 은이 조선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국가의 실물 경제와 통화량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연암은 생각했던 듯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한 실학자답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힘은 막강하다. 경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락에 빠뜨리기도 한다. 지금 세계 경제에 큰 걱정거리를 안기고 있는 미국발 금리 인상만 봐도 그렇다.

지금 세계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3일 "선진국이 통화와 재정 긴축이라는 정책 노선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세계는 불황과 장기 침체로 치달을 것"이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까지 했다.

2020년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나섰다. 사상 유례없는 돈 풀기였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했다. 미국의 돈 풀기가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소설 속 허생의 심정과 같았을 수 있다. 우려대로 미국의 돈 풀기는 생산 부문이 아니라 금융과 자산 시장에 주로 흘러들었다. 너도나도 돈 빌려 집 사고 주식을 샀다. 정작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한때 세간에는 '양털 깎기'라는 음모론이 횡행했다. 중국 경제학자 쑹훙빙이 저서 '화폐전쟁'을 통해 주장한 개념이다. 유대 자본가들이 돈 풀기와 조이기를 통해 거품을 키웠다가 터뜨리는 수법으로 주변국들의 부(富)를 반복적으로 약탈해 간다는 주장이다. 쑹훙빙은 그 대표적 사례로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를 꼽았다.

유대 자본가가 막후에서 모든 것을 기획한다는 황당 주장을 빼면 쑹훙빙이 적시한 현상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 쇼크에 걱정이 여간 크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발 금리 인상 드라이브로 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 발발 가능성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과 태국이 유력하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판국이다.

기성세대는 외환위기의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생생히 기억한다.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는데 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치권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쟁과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다. 못 미덥기는 정부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협치 모습을 보기가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 정부와 여야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야고부 野鼓賦

'사야카'(沙也可).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우선봉장으로 출병했다가 조선에 귀화해 조총과 화약 제조법을 전수하고 정유재란이 일자 직접 왜군에 점령된 18개 성(城)을 되찾는 혁혁한 전공을 남겼다. 이에 선조가 김해 김씨 성(姓)과 '충선'이라는 이름과 정이품의 벼슬까지 하사했다. '사성(賜姓)' 김해 김씨(우록 김씨) 시조 김충선(金忠善) 장군을 모신 사당이 대구의 녹동서원이다. 침략전쟁이라는 '불의에 맞서 의(義)를 좇아' 조선에 귀화한 장군의 후손들이 찾아오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정도로 일본에서도 재조명된 바 있다.

이순신이 반일(反日)의 표상이라면 김충선은 한일 우호의 상징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조국은 민정수석 때 SNS에 '죽창가'를 게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선거는 제2의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내고 반일 감정을 들쑤셨다. 지난 대선 때 한 유튜버로부터 이순신이라는 칭송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스스로 이순신의 화신을 자처하면서 선거를 지휘했다.

'더 이상 나를 소환하지 말라'

그런 내력을 가진 이 대표는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 합동 군사훈련에 나서자 7일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자 한미일이 대응 군사행동에 나선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대뜸 '친일' 공세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수시로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다. 이순신 장군이나 김충선 장군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김충선 장군을 찾아 나서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각하되고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며 사면초가에 처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순신 장군을 소환했다. 그가 SNS에 올린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은 장군이 옥포해전에서 부하 장수들에게 '적선이 있는 것을 알고 가볍게 움직이도록 하지 말라'고 한 군사 명령이다.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면서 경거망동해 온 그가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이순신)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diderot@naver.com

사 설 社說

윤석열 정부 첫 '제2국무회의', 진정한 지방시대 기대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7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올해 신설된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역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신설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것이며, 1차 회의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켰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점은 다행스럽다.

대구시는 ▷국장급 기구 추가 설치 권한·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재난 시 접수된 의연금품 배분권 독점을 깰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구경북 등 지방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지방은 매년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방 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된다. 정책 집행에서 지방 홀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지방시대를 열자"고 요청했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해 지역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 목표는 '지방시대'이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경제 버팀목 반도체 산업 위기에도 정치권은 나 몰라라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7%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를 9%가량 밑돈 '어닝 쇼크' 수준이다. 디스플레이 부문이 호조를 보였고 스마트폰·가전이 선방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격감한 것을 넘어 무역·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이 8, 9월 두 달 연속 줄면서 무역수지는 6개월째 적자가 이어져 올해 누적적자가 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고조되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적 경기 침체 등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홀로 헤쳐 나가기 어렵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이를 증명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반도체가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치권은 무사안일하기 짝이 없다.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 합의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어 반도체 산업에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자국의 기술·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키로 함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산업에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반도체 위기는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반도체 특별법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규제 철폐로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K-콘텐츠의 마중물 될 한글 문헌 전수조사

한국국학진흥원이 옛 한글로 된 문서와 문헌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옛 한글을 연구해 산업화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세계화하는 K-콘텐츠의 확장성을 감안하면 격려할 만하다. 특히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8천여 점의 한글 고문서와 고문헌을 마중물 삼은 일련의 노력들은 모든 K-콘텐츠의 기본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를 주도할 한국국학진흥원 훈민정음뿌리사업단은 대학·학술기관 등과 협력해 향후 5년에 걸쳐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다. 시급을 다툴 작업으로 볼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하고 흥미로운 소재 발굴과 풍부한 고증을 위해서는 오히려 오랜 시간을 투여해도 좋다. 무엇보다 여성과 민초들의 소통 수단이던 옛 한글을 통해 당대의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과거를 보는 눈은 대개 문자를 깨우친 식자층의 시점이었다. 양반가 남성의 대의에 초점이 맞춰진 문헌과 기록들이 시대적 흐름을 읽는 잣대였던 것이다.

옛 한글 기록이 새롭게 드러낸 전과를 우린 이미 경험했다. 안동 정상지구 발굴 과정에서 나온 무덤 속 편지가 원이 엄마를 알게 했고 조선시대 양반가 내외의 사랑이 요즘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 편지 한 통이 미친 영향은 컸다. 소설과 오페라라는 콘텐츠로 완성된 건 물론 안동 관광의 주요 자산 중 하나가 됐다. 고정된 시대적 풍경의 재해석을 가져오는 옛 기록은 무한한 창조의 원천이 된다. 단순한 기록으로 폄하해선 안 될 일이다.

다만 전수조사로 도출될 결과물이 학술적 효과에 국한돼서는 곤란하다. 교과서적 지식 전달에 그칠 것이 결코 아니다. 현 세대도 공감하며 읽고 즐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활발한 콘텐츠 활용 공모전 등으로 집단 지성과 관심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작은 고리가 무한한 콘텐츠를 끌어낼 열쇠 말이 된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도 머리를 맞대 주길 주문한다.

Ordinary Days of BALENKEY
- Together Balenkey -
ANNIVERSARY 38 year 기업전문 단체복 제작
Balenkey 골프웨어 아웃도어 발 렌 키

38년 노하우로 품질을 보장합니다

38년 동안 꾸준한 제품개발과 탄탄한 기술력으로
다양한 브랜드라인을 전개하여 최상의 퀄리티로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렌키의 제품은 국내 유수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기업 홍보용 근무복, 단체복, 팀복 등의 주문
단체복으로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단체복주문제작 / 대표문의전화 : 053-552-7088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유효기간〉
2019. 3. 9 ~ 2023. 3. 8

공감·소통·경청
아름다운 치유동행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